



“그 쌤의 이중생활”

자르고 붙여 '좋은' 것들만!

옥동초등학교
박경인 교사



10

2019
VOL.26

웹진



- ◀ 어제, 기억하기 • The-K 인터뷰 _ 한국교직원공제회 차성수 이사장
- ▶ 오늘, 생각하기 • The-K 리포트 _ 스마트한 사회에 대응하는 교사의 역할
- ⏸ 지금, 쉬어가기 • 지금, 여기 _ '라인강의 진주'라 불리는 아름다운 마을
- ▶▶ 내일, 행복찾기 • The-K Focus _ The-K 은빛동행 청바지 콘서트

Contents

04 여는 글
찬란하게 익어가는 이 계절에



◀ 어제, 기억하기

- 06 에세이
시로 하나 된 우리, 모두가 시인이다
- 08 The-K 갤러리
지금, 행복 그리고 우리
- 10 The-K 인터뷰 1
'사람'을 키우는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_ 한국교직원공제회 차성수 이사장
- 18 The-K 인터뷰 2
PBL의 모든 것, 콘텐츠가 교육을 바꾼다
_ 경기도 다산가람초등학교 정준환 교사
- 22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
말과 글의 힘을 세상에 보여준
언어 독립운동가 '한징 선생'

▶ 오늘, 생각하기

- 26 The-K 스페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어떤 교사를 양성할 것인가?
- 30 The-K 리포트
스마트한 사회에 대응하는 교사의 역할
- 32 공간의 재구성
공간의 행복이 하늘까지 솟다,
공간의 자유로움이 숲처럼 깊다
_ 서울하늘숲초등학교
- 36 [+25] 그 뺨의 이중생활
자르고 붙여 '좋은' 것들만
_ 충청북도 옥동초등학교 박경인 교사
- 40 [+35] Be Myself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 42 [+45] 티처&티처
아들은 몸으로 놀아주고,
딸은 말로 놀아줘라?
- 44 [+55] 인생 2모작
앙코르 커리어, 앙코르 라이프
_ 서울대학교 미술관 도슨트 유장근

발행인 차성수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www.ktcu.or.kr
발행일 2019년 10월 1일

편집 수석기자 이영경
객원기자 이경희, 정라희, 정은주, 김유리
교열 정혜영

디자인 아트 디렉터 이영임
디자이너 김도윤

사진 포토그래퍼 김도형, 한제훈, 권대홍

법률 자문 김용욱 변호사(법무법인 JP)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이팝 웹개발팀
디자인, 제작 (주)이팝 02-514-7567



웹진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The-K 매거진〉은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여 학교나 기관으로 발송해 드리며,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지금, 쉬어가기

48 지금, 여기

‘라인강의 진주’라 불리는 아름다운 마을
_ 독일 뢰데스하임

54 아름다운 동행

유쾌한 자매들의 ‘가을 바다 여행기!’
_ 김경원 시흥중학교 주무관과
자매들의 부산여행

60 라이프 연구소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_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62 마음섬

‘워라벨’을 찾아라!



내일, 행복찾기

64 The-K Focus

The-K 은빛동행 청바지 콘서트
다시, 청춘을 시작하다

68 The-K Family

공간의 이유 있는 변신
특별한 갤러리가 된 중식당
_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미술식당’

72 The-K News

문화행사 초청 및 The-K호텔 할인 소식

74 The-K Guide

공제회의 각종 금융제도와 복지서비스
_ 저축·대여&시도지부 안내편

76 The-K Video

영상으로 보는 공제회



지상 강의

78 더 즐겁고 효과적인 ‘회의’를 위한 노하우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찬란하게 익어가는 이 계절에

구름 사이로 보이는 끝없이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충만한 날들이 이어집니다.
국화를 닮은 아름다운 이 계절이
오늘도 우리 곁에서 찬란하게 익어갑니다.

10월의 〈The-K 매거진〉은 풍성한 소식들로
향기롭게 지면을 물들였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취임 1주년을 맞은 차성수 이사장의
사람을 키우는 행복한 교육 철학과
아이들과 놀이로 소통하며 창의성을 끌어올리는 정준환 교사의
진심과 열정은 큰 울림이 되어주고,
낭만 가을 여행지 ‘독일의 뢰데스하임’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을 한껏 부추깁니다.

제주 여행자들에게 소환행을 선사하는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의 ‘미술식당’부터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은빛동행 - ‘청바지 콘서트’의 넘치는 열정까지
The-K와 따뜻한 감성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로
가을의 풍요로움을 한껏 더했습니다.

지상의 글자들이 한껏 여문 이 계절,
독자 여러분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줄 〈The-K 매거진〉과 함께
찬란하게 무르익어 가는 이 순간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





시로 하나 된 우리, 모두가 시인이다

글. 김진행(수원 영일초교 교사)

하늘이 유독 푸르고 맑던 가을날이었다. 창밖으로만 단풍과 하늘을 구경하기에는 아쉬웠던 날.

“애들아, 우리 나갈까?”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좋아요!”

여기저기서 함박웃음이 번졌다.

마침 아무도 없는 운동장은 우리 차지였다. 가을을 실컷 느껴보라고 했다. 신나게 뛰어다니며 교실 밖으로 나온 기쁨을 누리는 아이들. 삼삼오오 모여앉아 수다를 떠는 아이들까지 다들 즐거워 보였다. 나도 잠시 낙엽을 밟으며 감상에 젖어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이끄는 손길을 따라가니 색색의 낙엽으로 큰 하트 안에 ‘5-1반’이라고 만들어 놓았다.

“우와~ 예뻐라.”

“사진 찍어주세요.”

“알았어. 윤미는 이걸 주제로 쓰면 되겠네.”

좋아하는 내 모습을 보고 은근히 마음을 놓는 눈치다. 평소 내 속을 많이 긁어놓던 아이인데 이런 감성으로 내 마음을 녹이다니. 너도 속마음은 이렇게 고왔구나.

시를 쓸 시간이다. 큰 나무 밑에 둥그렇게 둘러앉았다. 이미 써놓은 시가 있다면 고치고 다듬어도 좋고, 지금 느끼는 이 감정으로 새로운 시를 써도 좋다고 했다. 잠시 고민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진지한 모습으로 쓰기 시작했다. 적당히 서늘한 바람이 아이들의 얼굴을 훑고 지나갔고 낙엽이 뒹굴며 우리 곁을 맴돌았다. 야외에서 시를 쓰는 아이들, 가을바람과 햇살, 운동장, 낙엽,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였다. 아이들은 자신이 쓴 시를 돌아가며 낭송했고 우리는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지금 이 시간이 아이들 마음에 뭔가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라며 수업 을 마쳤다.

들어와 급식을 먹고 자리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송주가 곁으로 왔다.

“선생님, 요즘 시가 너무 좋아서 엄마에게 시집을 주문해달라고 했어요. 그 시집이 어제 도착 했거든요. 진짜 좋은 시가 있는데 제가 들려드릴게요.”

순간 마음속에서 찌르르하고 감동이 밀려왔다.

선생님에게 시를 읽어주려는 생각으로 학교에 왔을 아이를 생각하니 몽클했다. 시 수업이 이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이어주었구나. 아, 좋다. 더 좋았던 것은 동시집을 만들어 온 아이가 두 명이나 있었다. 보통 고학년이 되면 글쓰기를 싫어해서 최소한의 것만 해오는데 자발적으로 여러 편의 시를 써서 동시집을 만들어온 아이들을 보니 놀라웠다. 전에 했던 '자기만의 시집 만들기' 활동이 너무 좋아서 시를 계속 썼단다. '이정수 시인의 데뷔 이후 두 번째 시집'이라고 당당하게 적은 표지를 보고 한참을 웃었다. 이미 마음은 진짜 시인이다.

글쓰기는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했던가. 평소 속을 잘 드러내 보이지 않는 원석이는 시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일기장에 눈물이 찔끔 날 만큼 찡한 시를 써놓기도 했다.

이렇게 곳곳에서 창작되고 있는 아이들의 글을 혼자 보기가 아까웠다. 다 같이 오래 볼 수 있는 학급 시집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일이 시를 골라 편집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공을 들였다. 최대한 진짜 시집처럼 보이게 만들어 시집을 출간한 시인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인쇄된 학급시집이 도착한 날, 교실은 들뜬 분위기였다. 시집을 받고 처음에는 흥분했다가 어느덧 조용해진 아이들. 자기 시를 먼저 찾아 읽고 친구들의 시를 읽느라 진지하게 앉아서 한참 동안 시집을 뒤적였다. 뿌듯해하는 표정들을 보니 그동안 수고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시현이가 시집을 들고 앞으로 나왔다.

"선생님, 사인해주세요."

"어? 사...사...사인? 내 책도 아닌데?"

"에이~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반 시집이니까 선생님이 사인해주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지수도 한마디 거든다.

"진짜네? 그러면 되겠다. 선생님, 사인해주세요."

듣고 보니 간단한 편지와 이름을 써서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한마디 했다.

"와, 이렇게 내 사인받으려고 기다리는 거 보니까 진짜 작가가 된 기분이야."

"진짜로 작가 되시면 되잖아요."

아,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좋겠다. 아이들은 늘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시집을 나누어준 다음 날 정수가 등교하자마자 그 큰 목소리로 흥분해서 말했다.

"선생님! 제 시집이 팔렸어요."

"뭐라고?"

학급 시집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신 아빠가 만원에 사셨다는 것이다. 아이도 아빠도 얼마나 즐거웠을까. 어느덧 시인의 마음으로 순간을 잡아내고 사소한 것들에도 눈길을 주게 된 아이들. 이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책장에 꽂혀 있는 시집에 문득문득 눈길 주기를, 가끔씩 꺼내 읽기를, 그리고 오래오래 시를 써 담아두기를. 너희는 이제 진짜 시인이니까. ㉞



지금, 행복 그리고 우리

〈The-K 갤러리〉는 '한국교직원미술대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전국 교직원들의
문화예술 창작품을 감상하면서 바쁜 일상, '지금, 행복,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백두도원도

김영옥
문현고등학교

캔버스에 아크릴 혼합재료 | 72.7x53cm, 2017

현대인을 위한 치유의 상상 공간으로 안건의 몽유도원도와 정선의 금강전도에서 영감을 받아 금강도원도를 완성하였고, 한국인의 염원을 담아 통일을 기원하는 백두산의 정기를 담은 백두도원도를 만났으며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앞으로는 독도도원도와 한라도원도 등 이상향을 품으며 유토피아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을 할 것이다.



구절초의 향연

Watercolor on paper | 72.7x53cm, 2017

가을 어느 날 깊은 산 속에
무리 지어 피어난
구절초와 뒤에 서 있는
소나무 숲을 수채화로 표현함.

이영조
가람초등학교



시골길에서

Oil on Canvas | 60.6x72.7cm, 2017

비 온 뒤 청아한 세상 기다리며...
점, 선, 면, 색의 무의미한
교차에서 오는 필연...
그들은 모든 세상의 투박함을 덮어
감싸준다...

조대훈
대덕여자고등학교

‘사 람’을 키 우 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최성우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앓이 쌓이면 지혜가 깊어지고 경험이 많아지면 이해가 넓어진다.

사회학을 전공한 연구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식을 익혔고 대학에서 학생들과 부대끼며 스스로 교육을 실천했다. 20년간 몸담았던 대학의 울타리 밖으로 나온 사회학자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나아지는 실천 방안을 고심하고 실행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금천구청장을 거쳐 지난 2018년 10월 제21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으로 부임해 1년여 동안 현안을 살펴본 차성수 이사장. 전국의 교육가족에게 전하는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

글. 정라희 사진. 한제훈

회원을 위한, 회원 중심의 공제회가 될 수 있도록

차성수 이사장의 시계는 분주하게 돌아간다. 대외적인 일정만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살피고 결정할 사항들이 무척이나 많은 까닭이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분초를 아껴가며 일정을 소화하는 차 이사장의 시간을 잠시 구했다. 그가 지난 1년간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지내왔는지 궁금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교직원들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얻은 것은 저에게도 영광이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더 잘해야겠다는 각오도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선에서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놀라웠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회원님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혜택들과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우리 공제회 임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더 많이 청청하고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회원들을 위한, 회원 중심의 공제회가 될 수 있도록 공제회를 꾸려가고자 합니다.” 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미래자산과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투자기관이자 교육가족의 복지기관이다.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자 차 이사장은 공제회 대표 일꾼으로서 지난 1년을 바쁘게 보냈다. 교육 현장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던 시절 느꼈던 점과 참여정부 시절 공직에서의 경험 그리고 행정가로서 각종 정책을 수행했던 지난 30여 년의 노하우가 공제회 경영에 든든한 디딤돌이 됐다.

안정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자신감

가장 관심 있게 진행한 사업은 역시 기금운용사업이다. 차 이사장은 “기금운용파트 주도로 적절한 투자와 적절한 수익을 확보해 회원들에게 약속한 급여금을 드리는 데 목표를 두었다”고 강조한다.

“공제회 같은 기관이 가져야 할 기금운용 기준은 일시적인 대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적정 수익률 확보입니다. 우리 공제회는 지난 50여 년 동안 수준 높은 자산운용 전략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지속해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8년 국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기업금

隨處作主

수

처

작

주 _ 어느 곳이든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교직원들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얻은 것은 저에게도 영광이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더 잘해야겠다는 각오도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선에서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놀라웠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융과 대체투자, 해외투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수익처를 다변화해 온 노력이 위기에서도 선방할 수 있게 했다.

최근 5년간 투자수익률 추이를 살펴봐도 공제회의 투자 실적은 ‘안정적’이다. 최근 5년간 공제회는 평균 5.9%의 투자수익률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4.7%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제회가 매년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개별적인 투자 건에 대해 어떤 외부 압력도 받지 않고 자체 전망에 근거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들 수 있다.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이후에도 여러 단계의 심층 분석과 검토 과정을 거치는 등 검증 프로세스도 탄탄하다. 공제회는 지속가능성과 안정적이고 적절한 수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해왔고, 이를 위해 대체 투자 등의 미래지향적인 사업 영역을 앞서 개척했다. 현재 공제회는 지급준비율 100%를 넘어섰다. 회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만큼 기금운용을 잘해왔다는 방증이다. 차 이사장은 성공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을 꼽았다.

기금운용 인력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투자수익률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기금운용 책임자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바뀐다면 안정성을 담



보할 수가 없지요. 공제회에는 훌륭하게 훈련된 인적 자원이 2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10년, 20년 이상 오직 공제회 회원을 위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대표적인 기관투자자로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그렇기에 차 이사장은 “기금활용에 있어 더욱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다. 올해도 전술적 자산 배분 기능을 강화해 주식·채권·기업금융·대체투자를 아우르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아래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별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마음의 무게를 더는 쉽터를 마련하다

차성수 이사장은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통한 회원들의 미래 대비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넘어 “회원들의 기대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회원들에게 필요한 사업과 정책을 적절하게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교육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에 손을 보태고, 교직 생활 중이나 퇴직 후에도 회원들에게 가장 든든한 후원군이 되겠다는 것이다.

차 이사장은 해마다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와 직무 스트레스로 힘

들어하는 교사들의 마음을 치유할 방안 모색에 관심을 두고 임직원을 비롯해 회원들과도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인 사업도 시작했다. 신규 복지 서비스로 도입한 교직원 치유 상담 프로그램인 “The-K 마음 쉽”이다.

교육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더 많이 육성하려면 교사들의 다친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이 교육 현장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상담과 컨설팅, 힐링캠프 등 다양한 맞춤형 심리 상담을 무료로 지원한다. 차 이사장은 동아대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며 직접 경험했던 바와 금천구청장을 지내며 현장을 살피며 정책을 운영했던 지난 경험을 이 프로그램에 녹여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지요.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선생님들의 부담도 커집니다. 그 요구와 기대가 굉장히 다양해서 모든 사항을 일일이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우리 사회는 적절한 의사소통과 배려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갈등도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선생님들도 적지 않지요. 저는 우리 공제회가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無 信 不 立

무

신

불

립 _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
젊은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자녀 문제를 상의할 기회가 많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예전에
자녀들을 대하던 관점과 교육방식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어요.
만약 세 딸이 없었다면,
현재의 교육 문제가 쉽게
제 문제로 다가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상처들을 함께 보듬어 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 이사장은 회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구축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왔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고령화와 저출생 등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지금, 앞으로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육성해야 하는 교직원들이 느끼는 부담과 책임의 무게는 상당하다.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이러한 상황이 학교 교육환경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지 돕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차 이사장이 교육 문제에 현재진행형의 관심을 둘 수 있는 배경에는 개인적인 경험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슬하에 1남 3녀를 둔 그는 첫째인 아들 외에 세 명의 딸을 공개 입양했다.

덕분에 그는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을 삶에서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제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거의 대학생이거나 결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어린아이들이 있다 보니 우리 부부보다 15년에서 20년 이상 차이 나는 젊은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자녀 문제를 상의할 기회가 많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예전에 자녀들을 대하던 관점과 교육방식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어요. 만약 세 딸이 없었다면, 현재의 교육 문제가 쉽게 제 문제로 다가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기성 세대가 책임을 먼저 감수하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공제회가 앞장서서 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직원의 자부심을 높이는 사회와의 동행

공제회만의 특색을 살린 전략적인 사회공헌활동에는 이 같은 국민이 반영돼 있다. 올해부터는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사회공헌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교실 만들기 사업, 미래세대 자신감 증진 사업, 취약계층 자립 지원 사업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사회공헌활동을 개편했다.

이는 회원들을 위한 복지사업이자, 세상을 바꾸는 사회공헌사업이다. 공제회의 존재 기반이 교육에서 비롯한다는 인식에서 시작한 일이다. 올해는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 교직원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탐방을 했다. 또한, 미래교사인 사범대, 교육대, 교원대 등 교원양성기관 대학생에게 해외 선진 교육시스템과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The-K 미래교사 해외 탐험대’ 사업도 진행한다. 즉각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사업은 아니지만, 무형의 가치에 투자해 교육계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보려는 의지를 담아 시작한 일이다.

지금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아름답거나 무로 자라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미래의 열매는 수확할 수 없다. 차 이사장은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표 기관투자자로서 자본시장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국민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잘 될 수 있게 돕는 일에도 공제회의 손을 보태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직원공제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을 마쳤고, 책임투자 조항을 신설하고 중장기 사회책임투자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투자 유형에도 ‘사회책임투자 유형’을 신설해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한편으로 차 이사장은 “공제회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제회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장애교원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포함해 취약계층 교육지원, 문해교육 지원, 임직원 봉사단 활동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창립 50주년,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필요한 일에 마음을 쏟았으니, 다음으로 대비해야 할 바는 다름 아닌 ‘미래’다.

다가오는 2021년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창립 당시 회원 수 7만여 명, 자산 13억 원으로 출발한 공제회는 2019년 9월 현재 회원 수 81만 명, 자산 37조 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외형적 성장만이 공제회가 추구하는 미래는 아니다. 그동안의 견실한 성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제회는 좀 더 지혜로운 방향으로 공제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자 지난 7월, 앞으로의 100년을 기획하는 전담 조직인 ‘비전 55TF’를 신설했다. ‘비전 55TF’는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이라는 의미를 담아 붙인 이름. 여기에는 창립 55주년이 되는 2026년에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둬 81만 회원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공제회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온 산업이 있고, 앞으로 100년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성장 산업도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기대와 요구도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공제회가 추진해야 하는 회원 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 55TF’는 이러한 의제를 함께 고민하는 조직입니다. 인력 운영, 조직 문화, 자금 조달 및 운용, 출자회사 관리 등 본회 경영 전반에 대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여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교직원의 미래와 노후를 위해 그리고 현재의 안



露積成海

노

적

성

해 _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회원의 복지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재구조화해야 할지 판단하고 있어요. 더불어 세대와 지역을 넘어 더 많은 회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사업과 복지사업을 만들어 가야지요.



정적인 교직 생활을 위해 공제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일종의 미래 기획이라고 할 수 있지요.”

‘비전 55TF’는 공제회 3대 핵심 역량인 ‘회원’ ‘조직’ ‘자산운용’으로 조직을 세분화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제회 경영의 근간인 회원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더욱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역량 강화 초점

과거 수백 년에 걸쳐 이루어진 변화가 최근에는 수십 년 혹은 수 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들 한다. 변화 속도가 전에 없이 빠른 만큼 세상을 바라보고 인지하는 세대 간의 시선과 인식에도 격차가 커졌다.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출생한 이들을 가리키는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의 중추로 자리매김하면서 기성세대에게 익숙한 수직적 조직문화가 아닌 수평적 조직문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커졌다.

“제가 부임했을 때 이미 공제회는 상당 부분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돼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공제회는 조직문화 혁신의 시작 단계가 아닌 완성 단계에 더 가까이 있지요. 지금은 제 역할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인 ‘The-K Way’를 내재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조직문화가 좀 더 개방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차 이사장이 각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은 ‘사일로(Silo) 현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사일로’란 조직 안에서 담을 쌓고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조직문화를 지칭한다.

“언뜻 자기 칸막이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다수 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넘어서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위아래 수직적인 지시나 소통보다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을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일이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시하는 방식이 항상 옳지도 않고, 설령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조직 구성원의 일정한 합의가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차 이사장은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닌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어떠한 사업과 정책이 진행됐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다소 진행이 더디더라도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좋은 결정을 위한 삶의 기준에 충실하며

취임 1년 동안 부지런히 달려왔지만, 그는 이제까지 해온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더 무게를 둔다.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이루고 싶은 일은 있다.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즉 ‘3저(低)’로 표현되는 뉴노멀 시대에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있고, 더욱이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향후 공제회 경영을 둘러싼 환경은 절대 낙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성장하면 몸집의 크기만큼 뭘가 달라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출자사업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구조화해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회원의 복지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재구조화해야 할지 판단하고 있어요. 더불어 세대와 지역을 넘어 더 많은 회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사업과 복지사업을 만들어 가야지요.” 실무자들이 현장에 필요한 사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행하더라도 공제회의 최고결정권자로서 더 합리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결정의 순간은 있기 마련이다. 예나 지금이나 결정을 내릴 때 그가 마음에 되새기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어느 곳이든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는 의미의 ‘수처작주(隨處作主)’,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노적성해(露積成海)’다.

“그동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자신이 주인처럼 당당하게 주도적으로 일하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일하려고 해왔습니다. 수처작주 해야 비로소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없으면 아무 것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임기 때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욕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요. 하지만 포장만 멋지게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가능한 변화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구성원 각자가 이슬이 되어 매일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면 언젠가 그런 노력이 커다랗게 모여 큰 바다를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㉔







PBL의 모든 것, 콘텐츠가 교육을 바꾼다

경기도 다산가람초등학교 정준환 교사

올해로 18년 차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정준환 교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PBL(Project Based Learning) 전문가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재미와 창의력은 물론 문제해결 능력까지 키워주고 있는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의 수업 시간을 직접 참관해 그 해답을 구해보았다.

글. 이경희 사진. 김도형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꿈꾸다

정준환 교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에서였다. 어려웠던 가정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안정적인 직장을 빨리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달리던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터닝포인트가 찾아온 것은 군대를 다녀와 복학한 이후였다.

“당시 교사 정년을 단축하면서 교사 인원이 부족하니까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3개월만 보수교육을 받으면 초등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초 임용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당시 저는 예비역으로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감과 교대생으로서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후배들과 함께 거리로 나갔죠.”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일반 시민에게서도 지지해커령 전혀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혔던 것이다. “당시 시민들 반응은 그게 뭐 어때서?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3개월 정도 공부하고 초등학생들도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냐? 교대생이 특별한 게 뭐가 있어? 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제가 대꾸를 잘 못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초등학교 예비교사로서의 자존감이 추락했고 그는 발걸음을 국회 도서관으로 돌렸다. 관련 국감자료, 정책자료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읽고 공부한 그가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였다.

“교사들도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교대 3학년 때부터 교육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한 그는 ‘농활’ 대신 ‘교활’을 나갔고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교육 현장에 접목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그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PBL(Project Based Learning)을 만났던 것도 그즈음이었다.

교사가 아닌 학습자(학생들)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상 혹은 현실의 문제를 다루되 그것을 인식하고 파악하며 해결 과정을 도출해 나가는 학습법은 아이들을 ‘기존과는 다르게’ 가르치고 싶었던 그의 열망과 맞닿아 있었던 것이다.

그는 PBL의 권위자였던 경희대학교의 강인에 교수 논문과 여러 사례를 참고해서 교생실습 수업에 처음 PBL을 적용해보았다고 회상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웃음). 잘 안됐어요. 애들은 정말 좋아했는데 선생님들 반응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애들이 통제가 안 되고, 판서도 안 되고, 교과서 내용도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데 그런 게 다 빠졌으니 선생님들께 뭘 하는 거냐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익숙하지만 2000년도 당시만 해도 통합교과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PBL 수업 등이 매우 낯설었던 분야였습니다.”



●
보드게임에서 다룬 역사는
모둠별로 주제가 달랐다.
어느 모둠은 인물들,
어느 모둠은 근현대사를,
어느 모둠은 선사시대를 게임 안에
집어넣은 것.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역사를 자연스럽게 접하되,
맞추면 맞추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꽤나 즐겁게 대응한다.

보드게임으로 역사를 읽다

그러나 정준환 교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PBL 내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뇌리에 남았고 아직은 초보자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 그리고 교사로 정식 발령을 받자마자 바로 경희대 석사과정에 들어가면서 그토록 선망하던 강인에 교수의 제자가 되었다. 스승이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니며 질문하고 파고들며 제안했던 그는 그 간의 연구와 성과, 학위를 인정받아 2012년도부터 경희대 겸임교수로 임명되었고 지금껏 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나온 ‘PBL’이란 수업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 정준환 교사에게 설명을 들었지만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5학년 학생들의 PBL 수업을 직접 참관해 보기로 했다. 오늘 아이들의 수업은 역사교과 과정이 담긴 PBL이다. 역사를 주제로 보드게임을 만들었다는데 사전에 설명을 들었음에도 정확히 실체가 잡히지 않는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 모두가 경계 없이 환하게 웃으며 낯선 방문객들을 반긴다. 5학년이면 3.5준기쯤 되는 시기일 텐데도 모두가 해맑고 순한 눈빛을 가진 게 인상적이다. 6개 모둠별로 앉은 아이들 앞에는 제각각 다른 보드게임이 놓여 있었다.

정준환 교사의 제안대로 게임 운영자 한 사람이 남고 나머지 모둠 인원들이 자리를 바꿔가며 다른 모둠에서 만든 보드게임을 체험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보드게임의 제작 수준이 상당히 놀라웠다. 퀴즈를 맞히고 주사위를 던지면서 나온 패에 따라 중간 중간 벌칙이나 게임을 해야 하고, 쉬어가기도 해야 하니 아이들 모두의 몰입도가 엄청나다. 모둠별로 터지는 웃음소리와 비명도 만만치 않았다. 보드게임에서 다룬 역사는 모둠별로 주제가 달랐다.

어느 모둠은 인물들, 어느 모둠은 근현대사를, 어느 모둠은 선사시대를 게임 안에 집어넣은 것.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역사를 자연스럽게 접하되, 맞추면 맞추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꽤나 즐겁게 대응한다. PBL 수업의 특이한 점은 통상 아이들의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있기 마련인 ‘이탈자’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다. ‘요즘’ 시대에 얽드려 있거나 딴짓하는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으니, 놀라움을 넘어 충격에 가까운 풍경이었다.

‘학력’보다 ‘역량’을, 구호보다 콘텐츠를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정말 PBL의 효과일까? 10년이 넘게 PBL 수업을 해온 정준환 교사가 느낀 아이들의 변화는 무엇이이었을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 제 제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입니다. 2004년, 2005년도에 PBL 수업으로 5, 6학년을 함께 보낸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 위주의 공부를 하지 않았음

에도 기본적으로 저학년 아이들이 타 반보다 시험성적이 평균 10점이 높았고 학습부진아들의 성적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좋아졌지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공부라는 건 제가 가르치고 전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 자존감을 높이고 어떤 도전에 대해 자신감을 얻게 되면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공부는 물론, 감정조절도 안 되는 아이도 있었는데 PBL 수업을 할 때는 만들기에 몰입하더라고요. 점차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기 시작한 그 아이는 결국 이천의 도자기학교에 진학을 하더니 지금은 도자기회사에 입사해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게는 모두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찾아와 정을 나누는 소중한 제자들이 되었죠.”

정준환 교사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늘 역사 보드게임 수업을 통해서 얻고자 한 교육 효과는 ‘학력’이 아닌, ‘역량’입니다. 역량은 자기주도적인 학습환경에서 기를 수 있는데, 그러한 학습능력은 철저히 실제적인 과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향상될 수 있어요. 학습자에게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어야 하는 게 제 수업의 목표인데 그 과정에서, 즉 보드게임을 만들면서 A는 창의력에 방점을 찍고 B는 설계를 잘하고 C는 규칙을 꼼꼼하게 만듭니다. 또 D는 비판적 사고력으로 주어진 주제를 넣거나 빼고 바꾸죠. 각자 개인의 역량을 발휘했을 때 팀워크도 나오는 겁니다. 협력을 통한 역량 발휘 또한 PBL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서 제

역할은 독려, 동기부여, 격려입니다. 그 이상을 하면 아이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준환 교사는 학교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강의와 집필, 재미교육 연구소 운영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특히 재미교육연구소는 교사 뿐만 아니라 박물관 학예사, 교육콘텐츠 개발자 등 학교 안팎의 교육 전문가들이 협업해서 ‘박물관, 미술관, 마을 단위의 교실 밖 PBL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으로서 ‘앞으로의 학교가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의 경계를 넘어 지역중심의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는 정준환 교사의 철학에 동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기투합한 단체이다.

“아이들 수업을 바꿀 수 있었던 것도 PBL 모형을 통해서 구현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양산해내느냐에 따라 교육이 바뀔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이론을 실천 현장에서 만들어 가고 실천 현장에 다시 이론을 적용하면서 선순환 과정을 구현하고 싶다는 정준환 교사.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이다. 교과서보다 훨씬 우월한 콘텐츠를 교사가 직접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자기 삶에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자존감 높은 아이로 자라는 것이다. 그 목표를 위해 오늘도 내일도 부지런히 공부하고 탐색하며 연구하는 그, 정준환 교사는 교대생 시절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달리는 중이다. ㉞



말과 글의 힘을 세상에 보여준 언어 독립운동가 ‘한징 선생’

한징 선생은 이윤재 선생과 함께 조선어사전을 편찬하던 중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중 순국한 한글학자다. 당시 시대 분위기에서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독립운동이며 애국 활동이라고 믿었던 지성인들. 그들의 신념이 오늘의 한글 사용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면 이들의 생애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호에서는 한글운동으로 민족의 얼을 지키고자 노력한 ‘한징’ 선생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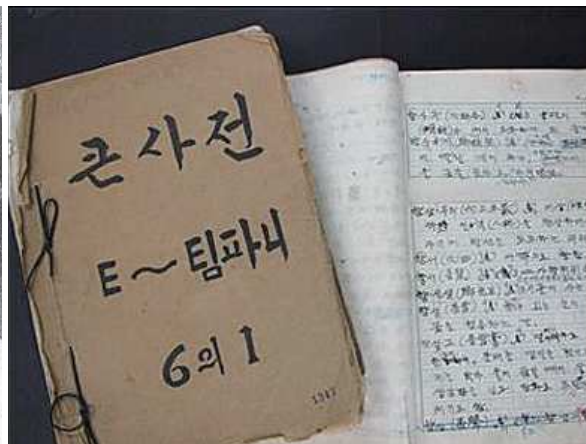
글. 정상규(《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의 저자)

*정상규 작가는 지난 6년간 역사에 가려지고 숨겨진 위인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역사 콘텐츠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514명의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보전 및 복지문제를 도왔으며, 오랜 시간 미 서훈(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을 받지 못한)된 유공자를 돕는 일을 맡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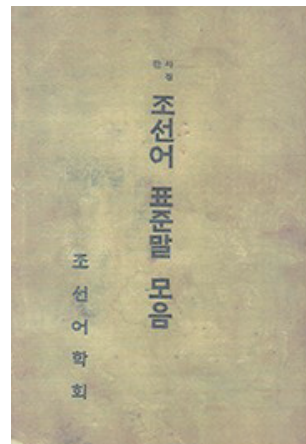
한징 선생



한징 선생 유품(조선어사전)



조선어사전





우리 말을 지켜라, 말모이 작업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 사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개항 직후 1874년 <로한사전>, 1880년 프랑스 파리 선교사들이 종교 홍보를 위해 출판한 <한불사전>, 1890년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와 집필한 <한영사전>, 1897년 영국인 선교사 테일러가 집필한 <한영사전> 등이 있으나 이는 모두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한글에 대한 정리, 표준어 통일, 조선 8도 말이 정리된 사전은 없었다.

1907년 당시 고종 황제는 우리 글자를 널리 보급하려고 국문연구소를 만들었다. 즉, 오늘날의 국립연구소이다. 이 연구소의 이름은 배달말, 글모음, 조선언문회 등으로 바뀌었고 회장은 주시경 선생이었다.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은 초등, 중등, 고등으로 '조선어강습원'을 개설하고 전국 지방을 돌며 한글강습회를 개최하고 지역과 지방의 말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말모이' 작업이다. 그러나 이 모든 작업이 한순간에 중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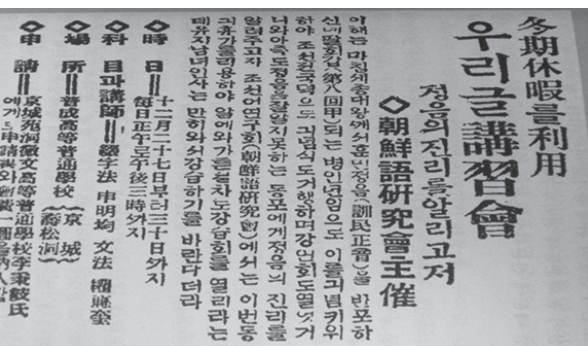
을사늑약(1905년)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을사오적 처단(1907년~1909년)을 모의한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가 일제 요시찰인물로 감시받던 중, 주시경 선생이 갑작스럽게 사망(1914년)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후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힘을 합쳐 다시 '조선어연구회'를 만들고 사전편찬 작업에 힘썼는데, 이 과정에서 매우 크게 이바지했음에도 상대적으로 역사에 가려진 인물이 바로 '한징' 선생이다.

민족성 유지에 힘을 모은 국어사전 편찬활동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극로 선생은 1929년 1월에 귀국한 후 우리 민족의 사전을 편찬하자는 이윤재 선생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선어사전 편찬회를 조직했다. 우리 민족과 민족성을 영구히 유지하는 방법은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했다. 한징 선생은 사전 집필을 맡아 이극로, 이윤재 선생과 함께 참여했다. 이극로 선생은 순수 조선어를 맡았고, 한징 선생은 한문 계통의 어휘를 총정리 했다.

역사 기록에는, 해방 뒤 한글날을 맞이하여 조선어학회의 동지 이중화 선생은 한징 선생에 대해 “한징 씨는 그 집안이 400여 년 서울에 근거를 가진 집이니만큼 정확한 발음을 압니다. 발음과 한자말 주석에 공적이 큼니다. 이 사람 역시 빈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에 대한 효성은 유명한 이야기로 참으로 모범적인 인물이었지요.”(『존귀한 희생자』 『자유신문』, 1945년 10월 9일)라고 쓰여 있다. 당시 사전 편찬원으로 함께 일했던 권승욱 선생도 한징 선생이 “언제나 쉴 새 없이 원고 쓰시기에 온 정력을 기울였다”라고 전했다. 일제 말기 조선어학회 서기로 근무했던 이석린 선생은 당시 조선어학회에서 받는 월급이 박봉이어서 한징 선생은 퇴근한 뒤에도 인쇄소에 가서 교정 보는 일을 했다고 회고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한글날 행사가 금지되자 조선어학회 학자들은 사무실에서 몰래 한글날 행사를 거행한 뒤, 신문지를 펴놓고 북어를 안주 삼아 먹으며 막걸리를 한 잔씩 마셨다고 한다. 이때 한징은 “원고를 속히 마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큰 사전을 하루 빨리 활자화하여 얼른 세상에 퍼뜨려야지, 까딱했다가는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있소. 왜놈들 하는 짓이 날로 수상합니다”라고 말했다. 선생은 순우리말 사전, 조선어사전을 빨리 세상에 내놓고 싶어 했으며 우리말을 보존하고 우리 민족을 영원히 유지하고자 했다.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 선생의 이런 신념과 태도는 함께 사전을 편찬한 이윤재 선생의 태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말과 글은 민족과 운명을 같이한다. 일본이 조선의 글과 말을 없애 동화정책을 쓰고 있으니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글과 우리말을 아끼고 다듬어 길이 후세에 전해야 한다. 말과 글이 없어져 민족이 없어진 가까운 예로 만주족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글을 써두고 조선어사전을 편찬해두면,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후에 이것을 근거하여 제 글과 말을 찾아 되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말과 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되고 또 민족운동이 되는 것이다.” (이윤재 선생이 젊은 청년들에게 한 말)



조선어학회 인사들(1935년)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보성고등보통학교에서 우리말강습회를 개최한다는 광고 (조선일보 1926년 12월 16일자)



조선어학회가 엮은 한글 (1942년)
(사전출처_한국민족문화대백과)



조선어학회 사람들(1946년)

말과 글의 의지에 담은 민족문화의 계승

일제는 당시 민족말살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우리말과 한글을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했다. 조선어학회 학자들은 사전의 완성을 통해 우리말과 조선의 혼을 영원히 유지하고자 했으며 사전이 완성되는 그날, 언젠가 조국이 광복되는 그날 우리 민족어를 되살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1942년 10월 일제는 사전 편찬위원 전원을 긴급체포하고 사전 원고 및 서적을 전부 압수했다. 이것이 ‘조선어학회 사건’이다.

민족의 언어를 영원히 유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민족정신의 유지, 즉 투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에 언어 독립운동에 해당한다. 국어학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나라를 지키려는 행동의 하나였던 것이다. 한징 선생도 조선어학회 사전 관련자로 1942년 10월 1일에 체포되었다. 함경남도 흥원경찰서에 구금되어 매일 난타를 당하고 물고문을 당했는데 왜 사전을 편찬했느냐는 일본 순사의 질문에 “조선 사람이 조선말을 쓰고, 조선말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선생은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2월 22일 고문 후유증으로 옥중에서 순국했다.

고문 속에서도 극적으로 살아남은 조선어학회장 이극로 선생은 광복 후 이렇게 말했다. “한징 선생은 조선어사전 편찬 사업에 중시일관 관계하여 사전편찬에는 누구보다도 그의 공로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극로, 『이미 세상을 떠난 조선어학자들』 『경향신문』, 1946년 10월 9일)

마지막으로 한징 선생의 말을 남기며 결론을 맺음한다.

“말과 글은 민족정신의 가장 중요한 소산인 동시에 민족정신이 거기에 깃들이는 동주리다. 민족문화의 창조 계승 발전은 그 말과 글의 의지에 있다.” ^(K)

한징(韓澄) 선생 (1886. 2. 20 ~ 1944. 2. 22)

- 한글학자, 언어 독립운동가
- 순 조선어 대사전 편찬 전임위원

- 조선어학회사건으로 구속되어 옥중 순국
-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 ②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어떤 교사를 양성할 것인가?

2019년 말 교육부에서 기존의 수학과 과학의 융합 차원을 넘어서서 정보 교과 영역까지를 포함하는 즉, 수학·과학·코딩을 융합하는 장기 발전 계획이 나온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교육 전반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교육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교육 변화의 태풍 한가운데에서 교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글. 임철일(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최근 서울 소재 모 대학의 한 교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새롭게 총장으로 취임한 분이 자신 있게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코딩은 선택이 아니다. 코딩 혹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줄 아는 것은 마치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니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은 코딩을 배워야 한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변화로 경기권의 모 대학에서는 필수 교양 과목으로 ‘창의적 문제해결’이라는 강좌가 개설되었다는 점이다. 모든 학생

들은 이 과목을 졸업 전에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창의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필자조차도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와 시도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대략 15년 전에 전남의 모 간호대학에서 창의성과 관련한 교과목을 개설하면서 필자에게 ‘어떠한 교수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다. 당시 느꼈던 당혹감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간호대학에서 웬 창의성인가?’ 하는 것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가? 대학의 경우 음악대학이든 미술대학이든 단과대학이 지닌

독특한 특성과 상관없이 ‘코딩’과 ‘창의적 문제해결’이 필수 교과목으로 개설되는 현상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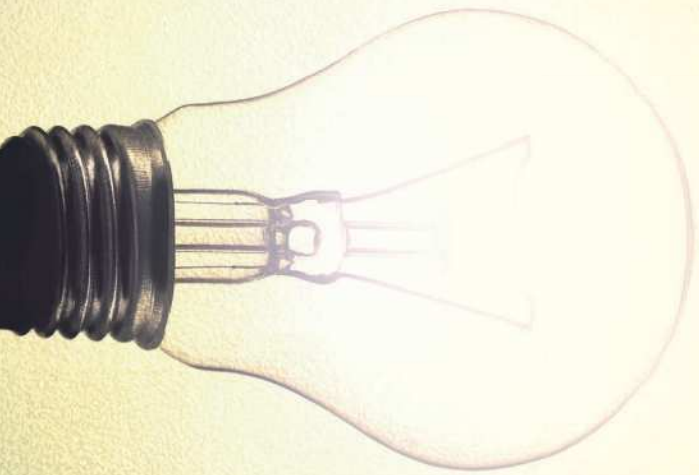
이는 비단 대학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는 교과 혹은 교과의 하위 영역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교사는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가

코딩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대한 강조에 비추어 볼 때 현직 및 예비 교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현재 현직 교사는 3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에 초점이 맞추어 육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지적 학문 영역을 대변하는 교과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이른바 특정 교과에 대한 전문가로서 양성되어 그 교과에 대한 내용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 교과목 즉, 영어 교사, 수학 교사, 과학 교사, 역사 교사로서 길러졌다고 볼 수 있다. 교육학자 블룸(Bloom)이 설정한 인지적 교육 목표 중 지식, 이해, 적용 수준까지를 각 교과목 별로 효과적으로 다룰 줄 아는 교사였으며, ‘창의성, 문제해결력’과 같은 고차적 사고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레 배제되었다.

이 점은 초·중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직업 기술을 가르치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사도 마찬가지였다. 이 상황에서 창의성, 문제해결력, 의사소통과 같은 역량 중심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 교육은 여전히 전통적 교과에 대한 내용 전달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비 교사를 위한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경우도 아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전통적 학문 단위의 학과 중심 체제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생물



● 이제 코딩은 선택이 아니다. 코딩 혹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줄 아는 것은 마치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니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은 코딩을 배워야 한다.



교육과에서는 생물 교육에만 집중하여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 중심의 전통이 아직 강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수준은 다르지만, 개별 교과 중심의 교육 체제는 여전하다. 코딩 영역이 다른 교과와 연계하여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해결력과 같은 고차적 사고는 여전히 선택적이며,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 앞에서 다룬 변화를 고려할 때 현직 교사와 예비 교사 모두 전통적인 특정 교과 내용 전달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록 초기에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이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의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실체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핀란드, 호주는 교육과

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Arizona) 주립대학의 다양한 융합 학부의 운영 등은 어떤 방향으로 교육이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변화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사는 특정 지식과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 전문가로서 역할보다는 학습자의 고차적 사고를 촉진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는 것을 도와주는 촉진자 혹은 학습 지원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코딩은 ‘컴퓨터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를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대학 총장이 간파한 것처럼 하나의 공통적이면서도 유용한 언어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자국어 그리고 영어와 같은 외국어가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한 언어가 되듯이 이제는 코딩이 실제 생활과 문제해결 활동에서 기초적인 언어가 된 것이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우리의 물리적 실제 세계가 코딩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상의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을 주도하는 교사는 코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의 문제를 어떻게 코딩을 통하여 정의하고, 그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어떻게 새로운 역량을 기를 것인가

앞에서 검토한 새로운 교사의 역량 즉, 전통적 교과 내용의 전달자에서 벗어나 창의적 문제해결과 같은 고차적 사고와 코딩을 통해 컴퓨터적 사고를 촉진하는 촉진자로

서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매우 체계적인 노력을 장기적 관점에서 실행해야 한다. 단기간에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역량을 길러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다. 하나는 수업 방식의 변화이다.

더 이상 특정 교과 내용의 전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수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지식, 이해, 적용을 벗어나서 분석, 종합, 평가, 창의와 같은 인지적 목표를 특정 강좌의 교육 목표로 채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순간 전달 중심의 전통적 교수 방법으로는 해당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지난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소개되어 오고 있는 문제 기반 학습(Problem Based Learning)과 2010년 이후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과 같은 수업 방식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고차적 사고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고도화된 교원양성체제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

대학 수업의 변화와 함께 제도적인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교원 수요가 감소되고 있으며(예컨대, 최근 초등학교 임용 적체 문제), 교직과정 평가를 통하여 많은 교직과정과 사범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교직과정, 교육대학, 사범대학의 교원양성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미시적 대응에 불과하다. 앞에서 언급한 고차적 사고 혹은 코딩 교육의 필요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체제가 유지될 뿐이다. 이에 대한 대안적 교원 양성 체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 그 중 하나는 일단 일반 대학에서 융합, 창의와 같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몇 개 전공에 대한 이해와 기본 역량을 획득한 후, 대학원에서 필요한 교과교육 및 일반 교육의 방법론을 획득하는 이른바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4+2' 체제의 적극적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 된 것이다. 마침 이러한 체제는 몇몇 교육전문대학원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이를 볼 때, 이러한 체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체계적 준비 기간을 거쳐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보다 고도화된 교원양성체제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변화는 단기간에 쉽게 올 수 없으며, 또한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 체제의 한계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들이 보다 솔직하게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여 함께 노력한다면 이러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교사를 어떤 체제를 통하여 길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한국 교육의 변화가 세계 교육 변화의 모델이 될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㉞

스마트한 사회에 대응하는 교사의 역할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지난 세기와 다른 21세기가 되었음을 실감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거의 교실을 중심으로 교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작업이었다. 결과를 측정하는 시험은 거의 선택형 중심으로 학생 개개인의 생각이 살아날 여유를 배제한 상태였다. 그러나 네모난 교실 안으로 디지털 세상이 들어왔다. 이런 변화는 감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최첨단 기계와 시스템의 스마트 교실은 새로운 교육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걸맞게 이제 교사도 세상 밖으로 나가 세상과 폭넓게 교류해야 한다.

글. 김광섭(교육칼럼니스트, 前 순천동산여중 교장)

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스마트 교육

디지털 세대는 더 이상 교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스마트 교육을 통해 공간을 파괴하여 전 세계는 좁아지고, 학교의 개념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국가 간에 교실 간의 벽을 허물어 교육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스마트 교육은 학교에 어떤 변화를 예고할까? 한국의 한 초등학교는 매주 호주의 아이들과 수업을 함께 받는다. 한국-호주 간 화상 수업은 교실과 교실을 연결하는 문화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민족주의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장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한 특수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알람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활동시간을 스스로 통제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아이들의 자립심을 길러준다. 이처럼 장애의 벽도 서서히 사라져 간다.

육지와 수백km 떨어진 섬에서도, 사교육의 기회가 적은 아이들도 이제는 원어민 선생님에게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장애와 지리적인 여건을 뛰어넘어 누구에게나 열린 교육! 스마트 교육은 단순한 기술 도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새로운 학습 틀을 창조하라

스마트 교육 환경은 날이 갈수록 진화되고 있다. 스마트 도시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인프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적응하고 이를 실현할 21세기는 교사 혁명이 필요하다. 그 변화의 중심엔 무엇보다 교사들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학생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창조하는 촉매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스로의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 스마트 수업을 공유하고, 장비의 작동법을 익히는 교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세대의 학습 방법을 연구하려는 교사들의 노력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제 교사의 역할은 가르치는 주체에서, 무궁무진한 세상의 안내자이자 수업의 설계자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된 것이다. 발전된 기술이 있어도 교사가 관심이 없고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소통은 교육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교사와 학생이 IT로 소통한다. 필자도 필요할 때는 학생과 SNS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다.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지만 끈끈하게 이 연결망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교사와 학생 간 소통의 도구, 그리고 창구도 변화가 필요하다.

디지털 세대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자기들의 속마음을 더욱 쉽게 털어놓는다. 수업 시간에도 필요하면 교육용 SNS를 이용해 더 많은 아이에게 피드백을 받고, 학교를 마친 후에도 온라인 교실은 언제나 열려 있다. IT와 교육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학습의 틀을 창조하여야 할 시점이다.

배움에 도전하는 용기와 사색의 필요성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문 시대에 배움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갇힌 자기의 세계만을 살고 있는 교사는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일상적으로 교사들은 지도한 것에 대하여 충분한 반성적 활동이 이루어짐이 없이 습관화된 자기 방식에 따라 다시 되풀이된 지도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교실의 모습이라면 너무나 불행한 시간이다. 교사 자신도 불행하지만 이런 선생님을 만난 아이들도 불행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이 같은 일상을 깨지 않으면 자신과 만난 학생들의 성장이란 기대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는가! 그래서 꾸준히 자기의 지도 방식이 아이들

에게 잘 들어맞는가. 또 지도 방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에 대해 확인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항상 뒤떨어진 방식으로 자신의 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사에게 배움에 도전하는 용기와 사색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사색은 우주와 자연의 섭리를 몸으로 느끼는 성숙의 시간이다. 이 같은 내적 성장을 통해서 위대한 자신의 발견이 가능하다. 배움은 일차적으로 정보의 입수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거나 ‘아! 이거구나’하는 충격이 없이는 오래 묵은 습관을 바꾸기란 거의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더군다나 교사에게 더욱더 그러하다. 대학을 졸업하고 뚫내기 초년생이 되어도 타인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한 요인이다. 때문에 교사가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움의 창을 열어 놓고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현재대로 누가 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자신이 서면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사와 수업 교류, 참관, 성찰적인 배움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대이다. (K)





공간의 행복이 하늘까지 솟다, 공간의 자유로움이 숲처럼 깊다

서울하늘숲초등학교

지난 3월 개교한 서울하늘숲초등학교는 방문객이 매일매일 쉼 없이 이어지는 곳이다. 꼭 한번 보고 싶다는 교사들의 지인들부터 지방 학교의 관리자, 언론매체들까지 이 색다르고 아름다운 초등학교를 보고자 줄을 지어 찾아오는 것이다. 공간 혁신이 교육계의 주요 화두인 지금, 무엇이 서울하늘숲초등학교를 이토록 매력적인 곳으로 만든 것일까? 그 현장을 함께 가보자.

글. 이경희 사진. 김도형





모두의 꿈이 담긴 학교

공간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자신이 머무르는 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물며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공간이란 생활하는 곳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난 3월 개교한 서울하늘숲초등학교는 처음부터 교육 공간, 그 이상의 뜻을 품고 첫 삽을 뜬 학교다. 모두가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학교를 짓겠다는 열의가 모여 남다른 출발점을 지닌 이 학교는 건축 전문가와 학교 관계자가 TF팀을 구성하고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 가며 최대한 이를 반영해 지었다. 서울하늘숲초등학교에 아직 재학생이 없었던 탓에 아이들 의견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조언으로 받았더니 모두가 원하는 학교를 짓겠다는 ‘꿈을 담은 교실’로 향하는 열의는 그렇게나 뜨거운 것이었다.

심향순 교감을 만나 인사를 나눈 뒤 가장 먼저 안내받아 찾은 곳은 교무실 옆 카페 같은 휴게실이었다. 싱그러운이 짙은 식물들과 직접 커피를 내리고 마실 수 있는 테이블, 의자가 놓여 있는 이곳은 흔히 말하는 SNS용 사진을 찍어 올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예쁘다. 학교를 찾는 손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주로 사용하며 교사들이 방문객을 맞을 때도 이용되는 곳이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곳 하나로 서울하늘숲초등학교의 지향점이 명백히 보이는 느낌이었다. 학교지만 결코 학교 같지 않은 곳. 소통과 즐거움, 나눔의 장소로서 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 말이다. “지난 3월에 학교가 개교를 하면서 저 역시 이곳에 처음 발을 내디뎠어요. 처음 느꼈던 점은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겠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겠다 하는 거였죠. 교육자로서는 아이들의 활동을 접목하기에 정말 좋은 공간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심향순 교감의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교사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공간 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에 몰입했고, 전학이 결정된 아이는 “전학 가기 싫다”고 입을 삐죽 내밀었다. 개교 직전까지 완성이 되겠냐, 새집증후군은 어찌느냐 걱정이 많았던 학부모들 역시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태도와 실행력에 온전히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공간은 없었다

심향순 교감의 안내에 따라 서울하늘숲초등학교 곳곳을 탐험해 보기로 했다. 분명히 말하건대 방문이 아니라 ‘탐험’이다.

먼저 1학년 교실을 찾아갔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자꾸만 발걸음이 멈춰진다. 아이들이 모여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작은 버스킹 공간, 복도 바닥에 그려진 그림, 곳곳에 보이는 알록달록 예쁜 컬러의 벽까지 호기심 가득한 공간들이 자꾸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복도란 뒤통지 말고 조용히 걸어 다녀야 하는 곳인데 서울하늘숲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직접 테이핑으로 사방치기 선을 그어주어 아이들을 거기서 놀게 해준다니 그 발상이 참신하고 놀라웠다. 교실 복도 벽면을 따라 조르륵 놓인 신발장과 그 위에 놓인 쿠션도 이채로웠다. 이는 전 학년 아이들이 교실에서는 맨발로 생활한다는 원칙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아이들은 등교하면서 실내화로 갈아 신고 교실 앞에서 다시 실내화를 벗은 뒤 맨발로 교실에 들어간다. 여기가 바로 내 집인 양, 쉬는 시간이면 바닥에 엎드려 놀거나 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편안함이나 자유로움이 잡힐 듯 눈앞에 그려진다.

교실 안의 모습 또한 특별하다. 정면에만 있던 보드 칠판이 교실 사면에 다 붙어있는 것. 2학년을 맡고 있는 임정묵 교사는 이를 두고 “교사가 여러 가지 수업을 생각했을 때 활용할 공간이 많으면 수고로움이 덜하다”며 교사의 영역에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더욱 풍성한 수업이 가능하다고 이 새로운 교실의 특별함을 말해주기도 했다. 아이들이 집중력과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사면 칠판 외에도 칠판 아래에 맞춤으로 쏙 들어가 있는 바퀴 달린 작은 수납함은 교실 안에서의 자유로운 수업에 크게 일조한다. 어색하거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들은 앉아서 발표하기도 하고, 교실 중간에 둥글게 자리를 만들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기도 한다니 서울하늘숲초등학교의 교실은 말 그대로 교육과 체험, 놀이 공간이 한데 섞인 복합공간이었다.

운동장에서 바라보면 돌출된 외관으로 눈에 확 띄는 4학년 교실도 올라가 보았다. 네모반듯한 사각형 교실이 아니라, 다른 형태를 가진 ‘이형 교실’인 이곳은 방문객들이 가장 감탄하는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돌출된 베란다 같은 느낌을 주는 색다른 공간이 포함된 이곳은 교실 바닥과 그보다 높게 올라와 있는 면적에 식물과 책, 스톨의자가 놓여 있어 교실이 주는 고정관념을 철저히 무너뜨





여기가 바로 내 집인 양,
쉬는 시간이면 바닥에
엎드려 놀거나 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편안함이나
자유로움이 잡힐 듯
눈앞에 그려진다.



린다. 이는 공부하는 장소, 그 이상의 다양한 의미를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동시에 작지만 아늑한 이곳에서 친구들과 한데 어울리
는 즐거움,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타심을 배우기도 한다.

행복한 공간에서 커가는 행복한 아이

학교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놀이·쉼터·독서 공간은 아이들을
밝은 중앙으로 불러내는 일등 공신이다. 계단과 작은 미끄럼틀,
지붕까지 있는 이곳은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인 동시에 놀고
쉬고 책까지 읽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장 사랑받는 공간으로도 꼽
힌다.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도서관 또한 한번 발을 들이면 나
오기 싫은 장소다. 아직 책이 온전히 들어차지는 않았지만, 이 와
중에도 도토리 창고에 드나드는 다람쥐들처럼 아이들은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바닥에 뒹굴며 책을 읽고 창가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
는 것. 밝은 색감과 채광, 창밖으로 보이는 짙은 녹음이 이곳을 오
래도록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만드니 역시나 이곳도 책을 보는 장

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 선생님들의 꿈은 명확합니다. 서울하늘숲초등학교를 다니
는 아이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지요. 이 공간에서 행
복하길 바라고, 행복한 어른이 되어 다시 다음 세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자라나길 모두가 소망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심향순 교감은 서울하늘숲초등학교가 아이들의
자부심이자 긍지가 되길 바란다는 소원도 덧붙였다. 그 자긍심이
아이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긍정적으로 세상
을 살 수 있는 근간이 될 거라는 것이다.

2019년 2학기, 서울하늘숲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전체 모임 준
비를 하고 있다.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존중하면서 자발적으로 의
견을 내고 모아 더 나은 학교, 더 행복한 자신이 되기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규격화된 회색
빛 사각형 틀이 아닌, 노랑과 빨강과 파란 다양한 형태를 가진 이
공간에 맨발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가볍게 담아가는 중이었다. ㉞





Teacher



〈그 쌤의 이중생활〉은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창의력 넘치는 영상으로 세상과 즐겁게 소통하는
박경인 교사의 이중생활을 엿보세요. ▶



자르고 붙여 ‘좋은’것들만!

충청북도 옥동초등학교 박경인 교사

백 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그보다는 짧은 영상이 훨씬 많은 이야기를 담아낸다.
거기에 센스 있는 편집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 지나면 잊힐 게 뻔한 순간이 기억할 만한 별것으로
창조되는 순간이다. 보는 걸 넘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해 공유하는 시대. 옥동초등학교 박경인 교사의
3학년 교실에서 영상은 공기처럼 소비된다. 당연히, 미세먼지 하나 없는 맑고 깨끗한 공기다.

글. 정은주 사진. 권대홍

&



Creator

오랜 취미, 흥미로운 기회로 업그레이드

오늘을 기록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글, 사진, 영상, 혹은 다른 그 무엇. 방식이야 어떻건 각자의 감상과 가치관이 그곳에 함께 담긴다는 사실은 명명백백하다.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자면 그건 단순한 기록 그 이상이다. 지난 기록물을 보며 우리가 온갖 것들을 기억해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 당시의 기분이나 주변의 분위기, 심지어 공기의 감촉이나 향기 같은 것들까지 불현듯 현재로 소환되곤 한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일기를 쓰고, 시도 때도 없이 사진을 찍으며, 동영상 레코딩 버튼을 누르기도 한다. 유튜브상에서 ‘빠르크로’ 통하는 박경인 교사도 마찬가지다.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게 습관처럼 몸에 배었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 차곡차곡 저장해두곤 하는데, 대학교 재학 시절 다큐멘터리 제작 동아리 활동을 할 때부터 공부해온 편집 실력이 수준급이다. 관련 책도 여러 권 냈을 정도. ‘프로’라는 타이틀이 충분히 잘 어울린다.



●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요.
본업을 지켜야 하기에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고, 유튜브 작업은 새벽 시간을 활용합니다.
일찍 일어나 공부도 하고, 정리한 내용으로
영상 콘텐츠도 만들고요. 좋아하는 일이라
가능한 거겠죠. 제게 영상 편집은 좋아하는
공부이자 오랜 취미거든요.

Creator

&

사실 유튜브에서는 이미 유명한 그다. ‘빠르크의 파이널 컷프로 3분 강좌’ 채널을 통해 영상 편집 강좌를 올리는 티. 구독자 수가 1만 5천여 명이나 된다.

“처음에는 제가 만든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저장하는 용도 정도로 유튜브를 활용했어요. 그러다 알고 있는 지식을 타인과 나누고 싶어 공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올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회 수도, 구독자도 늘더라고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기초부터 단계별로 영상 편집 강좌를 올렸고, 3년째 지속하고 있어요.”

잘 활용하면, 이보다 좋은 게 있을까

유튜브에서 그의 이름 혹은 닉네임을 검색하면 영상 편집 강좌 말고도 흥미로운 영상들이 여럿 발견된다. 학기 초 ‘학부모님께 드리는 담임 영상 인사’라던가, 반 아이들의 설문 글을 편집해 만든 ‘박경인 선생님 사용 설명서’ 같은 것들. 아이들이 대본 작성부터 촬영까지 손수 해낸 ‘뉴스’,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독도 UCC’도 그 중 하나다.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만들고 저는 약간의 편집 기술만 보탬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이처럼 미디어를 직접 제작해보고 나누기도 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의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아도 그렇습니다. 6학년 때 방송반 활동을 했는데요. 사소한 듯해도 당시 경험이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 데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환경을 공부

할 때는 미세먼지 관련 영상을, 세계화를 공부할 때는 관련 뉴스를 보여주는 식이다. 직접 만든 자료부터 유튜브 콘텐츠까지, 범위나 형식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영상 미디어를 소비해 정보를 얻고 재미를 추구하는 세대다 보니 수업 효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설명에 고개를 드느냐 마느냐가 달라질 정도다.

혹자들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아동기의 영상 노출을 우려하지만, 무조건 막고 피하기보다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디어 리터러시(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교육을 강화해 좋은 영상을 찾아볼 수 있는 힘을 길러 줄 생각이다.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다시 공부하고

교사라는 본업과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취미, 자기관리에 웬만큼



철저해서는 두 가지 모두를 잘 해내기가 버거울 테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내는 박경인 교사. 그는 해답을 ‘즐거움’에서 찾는다.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요. 본업을 지켜야 하기에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고, 유튜브 작업은 새벽 시간을 활용합니다. 일찍 일어나 공부도 하고, 정리한 내용으로 영상 콘텐츠도 만들고요. 좋아하는 일이라 가능한 거겠죠. 제게 영상 편집은 좋아하는 공부이자 오랜 취미거든요.”

혹여 지친다 싶을 때는 다른 일로 환기를 하면서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는 그. 너무나 빠르게 생겨나고 변화하는 관련 지식을 오롯이 머릿속에 담으려 노력한다. 날마다 연습하는 것은 기본,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은 해외 사이트를 참고하기도 한다. 완전히 내 것이 되었다 싶을 수준이 되어야 타인도 이해시킬 수 있는 까닭. 직접 강좌를 제작하는 것 외에 댓글로 올라온 질문에도 답하려면 정제되어 있을 시간이 없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아요. 비슷한 관심사에서 콘텐츠를 찾은 분들이다 보니 질문 수준도 높거든요. 답하려면 저 역시 공부를 해야 해요. 가끔 댓글로 의견을 주는 분들도 있는데요. 다양한 피드백들 덕분에 콘텐츠 품질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요.”

더 넓고 깊어진 시야, 다 유튜브 덕분

지식, 가치관, 인간관계, 인터넷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게 무한하게 열려있다. 경계는 무의미하다. 박경인 교사가 유튜브 활동을 계기로 확장성이 더 넓어졌다 자평하는 것도 이 때문. 실제로 활동 전후를 비교했을 때, 차이는 확연하다. 일단 타 지역 교사들과 교류할 기회가 늘었다. 다른 직업군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접하고 일할 기회도 생겼다.

이러한 확장성은 그 개인적으로도 유의미하지만, 아이들을 대하고 가르치는 데도 이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고 또 그에 따른 필요는 무엇인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됐으며, 이야기에다 보다 다양한 시각이 담기게 됐다.

“선생님들의 유튜브 활동에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해요. 노하우, 경험, 관심사들이 다 다들 텐데, 그런 요소들이 영상으로 공유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각자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할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윈윈이죠. 경험은 나눴을 때 시너지가 생기니까요.”

‘Everyone can create’. 그의 모토처럼 누구든 창작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나이나 성별을 떠나, 혹여 몸이 불편하더라도 창의성을 발휘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무엇’을 표현할지 찾기만 한다면.

“좋아하는 걸 행할 때 눈빛은 살아나죠. 저는 아이들에게도 놀이하듯 즐길 수 있는 걸 찾게 해주고 싶어요. 초등학교 나이에 ‘잘하

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시험 점수 올리는 데 연연하기보다 뭐든 신나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영상 편집이라는 취미에 즐겁게 몰두할 겁니다.”

인생은 즐거움 지수가 높을수록 행복해진다. 행복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무언의 배움을 얻을 거라는 것도 분명하다. 지금 이 순간이 훗날 모두에게 웃음 나는 기억으로 플레이되기를. **K**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 다



성공의 비결은 없다. 다만 정도(正道)가 있을 뿐이다. 성공의 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명확히 결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를 성실하게 치르는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늘 어정쩡하다. 좀 더 좋고, 편하고, 안전한 것을 찾지만 정작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언가 얻으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선불이든 후불이든, 반드시 그렇다. 얻고자 하는 것이 크면 그만큼 치러야 하는 대가도 큰 법이다.

글. 강일수(두디스 코칭 대표)

각자에게는 주어진 것과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가진 게 많으면 좋겠지만, 강력한 한두 개만으로도 족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함으로써 주어지지 않은 것을 새롭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함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꿈과 목표를 향한 여정도 행복하게 지속할 수 있다. 감사를 잃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 과제가 일과 사랑이다. 인생의 참된 행복도 그 안에 있다. 일과 사랑을 하며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이루고,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치게

열망하자

트위터 공동 창업자 비즈 스톤은 “앞으로 2년 후에 당신에게 일어나길 바라는 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미래의 일을 떠올리고 머릿속에 계속 잡아두면 무의식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나도 효과를 봤습니다”라고 했다. 볼 수 없는 과녁은 맞힐 수 없는 법이다. 운동선수가 공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처럼, 진정으로 원하는, 머릿속에 계속 잡아 둔 그 무엇이 있는가. 그게 핵심이다. 절실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그 ‘절실함의 기술기’가 결국 일의 성패를 가른다. 절실하면 방법을 찾게 되고, 결국은 이루게 된다. 그래서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데 성공적인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서로 다른 특성들을 지니고 있지만,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한 가지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탐구하고 즐기고 사랑한다. 자기 일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그 일에 ‘몰입’하며, 다른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자유롭게’ 강렬한 열정을 발휘한다.

즐겁게

도전하자

새로운 길에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물을 멀리하고 수영을 배울 수는 없는 법이다. 일도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일을 체험하고, 사랑도 경험하며 배우는 것이다. 조슈아 J. 마린은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

고 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보지도 않고 ‘난 못 할 거야’하고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실패도 공부다. 실패를 허용하고 실패로부터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면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다.

실사 도전한 일이 잘 안되더라도 얼마든 이전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학습의 관점으로 보면 손해 볼 것이 없다. 길게 보면 다 ‘남는 장사’다. 시도와 실패는 새로운 지식에 이르기 위한 좋은 전략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실패를 처리하는 능력’이다. 실패할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일은 절대 실패해선 안 된다. 실패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놓치고 있었던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멋지게

극복하자

키에르케고르는 “모든 일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조심스레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당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승리!”라고 했다. 큰 승리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에게 온다. 사람은 일을 통해 단련되고 깊어진다. 힘든 일일수록 사람을 성장시킨다. 그러므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힘든 부서로 이동하게 되거나, 힘든 일을 맡게 된다면 기꺼이 환영할 일이다. 힘들수록 매일수록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를 써서 노력하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최선을 다할 때, 인간은 강하고 성숙한 존재가 된다. 장애물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그 장애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눈 앞의 장애물을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볼 것인지, 나를 성장시켜줄 ‘허들’로 볼 것인지는 마음가짐에 달렸다. 세계 최초로 삼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한 벤 카슨 박사는 “성공한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다만 그들은 그 무엇도 자신의 꿈을 멈출 수 없다고 믿는다”고 했다. 우리가 보고 집중해야 할 것은 ‘장벽’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목표’다. 장벽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진정한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목표 달성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당면한 일에 몰두하는 피나는 노력, 그리고 승패와 상관없이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다. 사람이 최선을 다했을 때는 자기 노력에 대해 스스로 감동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는 자신에게 상처 입히지 못한다. 최선을 다한 오늘이 어찌면 인생 최고의 순간일지도 모를 일이다. (K)

아들은 성별 아닌 기질에 따라 달라져야 할 자녀교육 노하우 몸으로 놀아주고, 딸은 말로 놀아줘라?

육아에 관해서 간혹 '아들은 몸으로 놀아주고, 딸은 말로 놀아줘라'는 얘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은 남자고 결국 몸으로 노는 것이 당연하듯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누구든 들으면 의심 없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딸 역시 남자아이들처럼 활동적이며 분주하게 놀기보다는 삼삼오오 모여 앉아 감성적 놀이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행동이라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인식 각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녀의 성별이 아닌 기질에 따라 양육이 달라진다. 글. 김동철(심리학 박사)

올바른 양육 정보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정보 각인

보통, 엄마의 경우 그동안 많은 양육의 경험 속에 자신도 모르게 양육 도사가 되기도 했거니와 양육에 대한 정보 역시 전문가 뺨치는 정보 탐독 능력자이기도 하니, 거의 모든 정보에 대하여서 '척하면 척'이 될 정도라는 건 엄마 스스로도 느낄 것이다. 더불어 저명한 양육 전문가의 말 중 자신이 생각하고 실천했던 양육 행동이 딱 떨어지게 맞는다면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으쓱한 어깨를 뽐내며 주변 엄마들에게 의기양양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아이와 옆집 아이가 다르고, 나의 아이라도 첫째와 둘째가 다를 것이고, 같은 성별 혹은 다른 성별의 남매, 자매들도 또한 다를 것인데 하물며 일관성 쌍둥이라도 그들 각자 인성, 성격, 기질이 다르니 어떻게 몇 가지의 선택된 양육 정보와 이론으로 우리 아이를 케어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아동 발달, 아동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부모의 양육 패턴을 두고 양육 정보 각인에서 오는 지적오류라 말한다. 보편적인 정보를 마치 자신의 맞춤 정보로 인식하고 자신이 느꼈던 생각이 주변 전문가들과 비슷한 공감을 얻어낸다면 정보 확증의 심리가 발동되어 아이의 기질, 성향, 부모의 환경 등 양육에 꼭 필요로 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이 무조건 맞다고 우기는 것이다. 결국 아이들의 다양성은 무시당하고 양육자는 머릿속에 정해 놓은 정보 각인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철옹성이 되는 것이다. 아동 심리, 발달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육자들의 오류가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과잉양육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면 자신도 그 틀에 갇혀버려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한다



고 믿고 있지만 정보의 홍수는 정작 눈앞에 있는 자신의 아이는 이해하지도, 분석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지적 오류에 갇힌다고 말한다.

관찰 일지를 통해 자녀의 기질을 분석하라

정답은 그저 평범하고, 단순하며, 고작 그것이라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놓치는 것이 너무 단순하고, 그저 쉬운 것이기에 그렇게 쉽게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양육은 절대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영유아 아이들의 발달 과정은 순식간 지나칠 수 있는 것이며 그 순간으로 아이의 지능은 물론, 기질 성향까지도 놀랍도록 변형될 수 있으니 부모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자녀의 정보를 활용해 나의 아이에게 올바르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자녀의 성향과 기질을 엄마 자신이 분석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자녀의 분석을 어려울 것이라 생각 말고, 3주 정도 관찰 일지를 써보면 좋다. 마치 아기 수첩을 쓰는 것처럼. 다 쓴 일지를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하면 좋겠지만, 양육자가 분석해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니 차분히 정리해 보면 된다.

자녀의 성향과 기질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

- 첫째,** 가장 큰 틀인 아이가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를 체크해 본다.
성향에 따라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둘째,** 말을 잘하고 잘 경청하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본다. (소통)
- 셋째,** 민감한지, 아닌지를 체크해 본다. (민감성)
- 넷째,** 품행과 예절을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본다.
(대인관계, 인성)
- 다섯째,** 공감 능력이 많은지, 적은지를 체크해 본다. (공감 능력)
- 여섯째,** 사람들에게 대한 두려움이 많은지, 사람들을 좋아하는지를 체크해 본다. (특정 공포, 거부감)
- 일곱째,** 학습(호기심)에 관심이 많은지, 아닌지를 체크해 본다.
(학습력, 호기심)
- 여덟째,** 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본다. (근면성)
- 아홉째,** 식욕이 좋은지, 편식이 심한지를 체크해 본다. (민감성, 건강)
- 열째,** 양육자 자신에 대한 명확한 양육 태도를 분석해 본다.
(주 양육자의 우울도, 불안도, 과잉양육, 스트레스)



위의 내용처럼 분석을 하다 보면, 자녀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설령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인식이 확인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양육 정보를 찾아가게 된다. 또한 생각으로 그쳤던



아이의 분석 정보가 이론적인 텍스트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더욱 이해하려는 인식이 생기게 된다.

마지막으로 부모 자신의 분석을 통해 자신의 양육 태도를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세트가 될 수 있다. 양육은 당연히 어렵다. 그리고 노력이 드는 일이다. 양육일지는 자녀 맞춤 정보에 한 번 더 귀 기울이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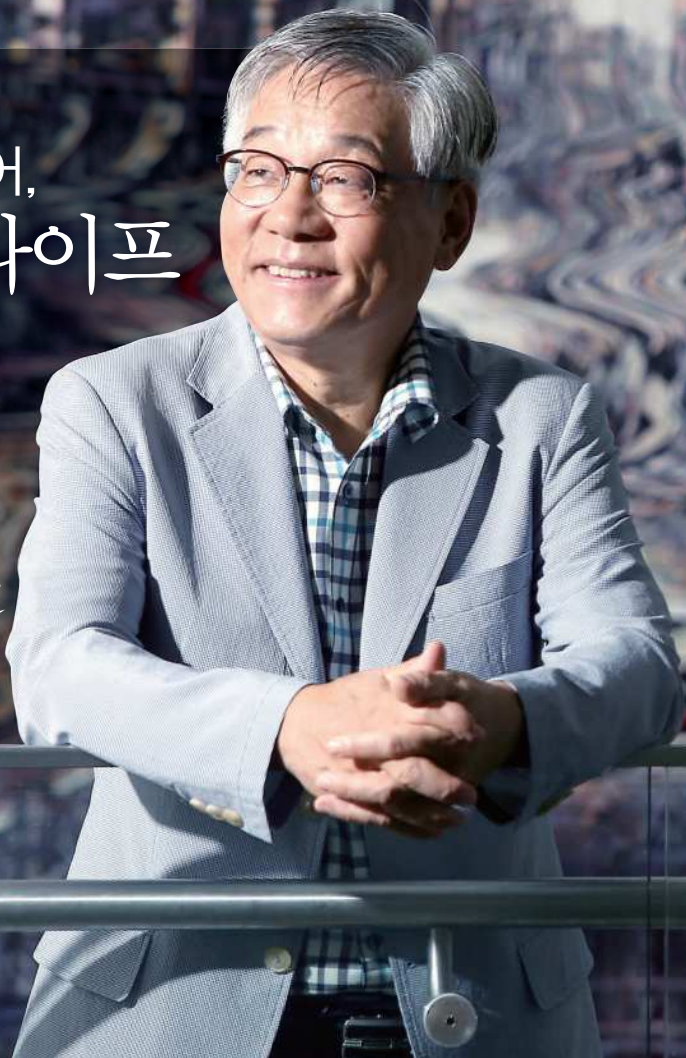
기질, 성향, 다름을 인정하는 부모로 나아가기

‘아들은 몸으로 놀아주고, 딸은 말로 놀아줘라?’ 이 말은 틀린 말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아들이든 딸이든 몸으로 놀아주는 시기와 말 등을 통한 감성으로 놀아주는 시기, 그리고 대화를 중심으로 조직과 사회, 규율을 알려주는 학습 소통의 발달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무조건 아들은 몸으로, 딸은 말로가 아닌 남, 여를 떠나 기질과 성향, 다름을 인정하고, 이분법적으로 나뉜 선택의 양육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동적인 역동성과 감수성이 함께 존재하는 생명체이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순수하고 역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㉔



앙코르 커리어, 앙코르 라이프

서울대학교
미술관 도슨트
유장근



이름 유장근. 만 65세. 그는 이제 노인이라 불리기로 한다. 은퇴 후 중국어 강사, 호스피스 병동의 봉사자, 또 도슨트로 활동하는 유장근 씨에게 노인이라는 배역 하나쯤 늘어도 나쁠 것 없다. 노년의 삶은 자유와 기회로 가득 차 있고, 그는 어느 길로 걸어갈지 선택할 수 있다. 앙코르!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

글. 이성미 사진. 김도형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나'를 찾다

고령자를 위한 비영리단체 시빅 벤처스(Civic Ventures)의 설립자 마크 프리드먼(Marc Freedman)은 자신의 저서 <앙코르(Encore)>에서 은퇴 이후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을 '앙코르 커리어(Encore Career)'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앙코르 커리어란 '일'이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생산성'과 '헌신'을, 은퇴와 함께 생기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자유'와 결합시킨 것"이라고 설명한다. '앙코르'라는 말에서 연상할 수 있듯 은퇴 후의 삶은 인생의 클라이맥스 후에 찾아온다. 그러나 여전히 무대의 연장 선상에 선 주인공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환호를 받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유장근 씨의 앙코르는 이전의 무대와 전혀 다르다. 유장근 씨는 1980년 LG그룹에 입사해 LG 유플러스 부사장 직위까지 올랐다가 만 30년 만에 퇴직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었다. 그 역시 은퇴 이전의 삶에 대해 후회는 없었다.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다. '올바른 삶'을 신조로 삼아 그것을 지켜왔고, '성공'이라 불릴만한 위치까지 올랐다. 그러다 갑자기 찾아온 은퇴는



유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수로 여가를 보내며 헛헛함을 달랬다. 그러다가 뒤늦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새로운 물음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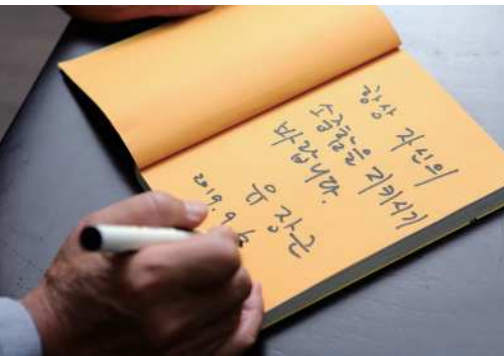
“피정에서 신부님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화두를 던지셨어요. 생각해보니 지금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닌 것 같았죠. 퇴직 후 이렇게 백수로 살 내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흐름을 깨뜨릴 도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평소 이야기했던 산티아고 순례에 나섰습니다.”

800km 남짓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그는 많은 것을 얻었다. 세계 각국의 여행자 친구가 생겼고, 아내와 평생의 추억거리도 생겼다. 무엇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그는 ‘가치 있는 삶을 살자’라고 다짐했다. 퇴직 전 온전히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았다면, 퇴직 후에는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난 것은 참 잘한 일 같아요. 그곳에서 제 과거를 정리해볼 수 있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내 과거에 대해 ‘잘했다’라고 정리하고 나니 비로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어요. 다른 퇴직자분들에게도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과거를 잘 정리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헌신과 자유의 앙코르 커리어

산티아고에서 돌아온 후 그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백수가 아니었다. 학생이자 선생님이고 또 봉사자였다. 우선 아내가 봉사하고 있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들에게 통역을 해주는 일을 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싶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고 봉사자들의 팔과 다리가 되어주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쓴 일기와 아내가 찍은 사진을 정리해 <산티아고 길의 소울메이트>라



는 책도 발간했다. 또 중국어와 미술사를 새롭게 공부했다. 새로이 배운 것은 그대로 두지 않고 사람들과 나누었다. 주민 복지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중국어를 가르치고, 서울대학교 미술관에 도슨트로 일했다. 도심권 50+센터 이룸학교에서 ‘도슨트의 재미 있는 그림 이야기’ 강좌를 신설해 강의도 했다. 퇴직 전보다 더 바쁘지는 않았지만 분명 더 행복했다.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헌신’을 더해 완벽한 앙코르 커리어가 되었다.

“요즘은 금요일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도슨트 활동을, 일요일에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해요. 도슨트 활동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작품 한 편을 볼 때마다 시 한 편을 읽은 듯한 감동을, 전시 전체를 관람한 후에는 문학작품 한 권을 읽은 듯한 감동을 주자’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설명하고요. 다행히 전시 관람객들도 “좋다”라고 평가해 주세요. 더 큰 감동을 드리고 싶으니 미술 공부도 계속할 수밖에요. 책도 많이 보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계발이 되는 거죠.”

열정은 결코 은퇴하지 않는다

마크 프리드먼은 저서 <앙코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공적인 앙코르 커리어 개척자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들은 앉아서 기다리지 않는다.” 유장근 씨도 똑같이 말한다. “우선 배우라”라고.

“퇴직 후 사람들은 ‘무엇을 배울지 모르겠다’, ‘배운 걸 어디에 어떻게 써먹나?’라고 고민해요. 저는 우선 첫 번째, 서두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은 많아요. 우선 자신부터 찾으세요.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먼저 얻으세요. 두 번째, 무엇이든 열심히 해보세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





●
저도 퇴직 후 스스로한테
놀랄 때가 많았어요.
나에게 이런 재주가 있는지
평생 몰랐거든요.
무언가 정해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할 일이 생겼고,
나에게 잠재되어 있는
재주도 찾게 된 거예요.

이 많아요. 그럴 땐 우선 뭐든 열심히 해보는 게 좋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 좋아지는 게 생깁니다. 세 번째, 돈에 얽매이지 마세요. 돈에 얽매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현저히 좁아져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저도 퇴직 후 스스로한테 놀랄 때가 많았어요. 나에게 이런 재주가 있는지 평생 몰랐거든요. 무언가 정해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할 일이 생겼고, 나에게 잠재되어 있는 재주도 찾게 된 거예요.”

유장근 씨가 지금 하는 일은 그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열정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돈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그것이 ‘봉사’라는 이름이 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환호를 얻는다. 가치 있는 삶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만 벌써 세 번째 산티아고 순례길에 올랐어요. 책 발간도 준비하고 있고요. 호스피스 봉사는 65세가 정년이라 이제 또 어떤 일을 할까 그것도 고민이에요. 시간은 많고 배울 것도 많아요. 그러니 계속 걸어가요. 부엔 카미노!”

‘일어나 앞으로 네가 가는 곳이 길이다... 너의 어깨에 잠자고 있는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라’ 밴드 봄여름가을겨울이 부른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노랫말이다. 유장근 씨가 가는 곳이 길이고, 그가 앞으로 펼칠 날개도 서너 개쯤 더 남아 보인다.

열정은 퇴직이 없고, 계속 ‘앙코르’를 외칠 뿐이다. 그에게 보낼 환호를 준비하기 위해 손을 모아야겠다. ㉞



‘라인강의 진주’라 불리는 아름다운 마을



*송일봉 작가는 (사)한국여행작가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해외여행전문지 '코리안 트레블러' 편집 부장과 대한항공 기내지 '모닝캄' 편집장을 지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기획위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국립공원 대표경관 100경' 선정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문화탐사 프로그램 '송일봉의 감성여행'을 24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KBS, MBC, 교통방송 등에 출연하고 있다.

독일 뤼데스하임



독일은 여행의 재미를 더하는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나라다. 특히 도심을 벗어나 작은 마을들을 지나며 평온한 풍경을 만나는 일은 독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라인강의 진주'라 불리는 뢰데스하임(Rudesheim) 역시 독일을 대표하는 '예쁜 마을' 가운데 하나다. 특별한 문화유적이 있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많은 여행자가 뢰데스하임을 찾아온다.

글_사진. 송일봉(여행작가)

낭만적인 풍경이 한가득, 뢰데스하임

뤰데스하임은 프랑크푸르트에서 60km쯤 떨어져 있다. 작고 예쁜 골목길, 마을을 둘러싼 포도밭, 설 새 없이 유람선이 오가는 라인강은 그 자체가 낭만이며 아름다운 풍경화다. 뢰데스하임은 유람선을 타려는 여행자들이 잠시 쉬어가는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매우 강하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큰길에서 벗어나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면 뢰데스하임 특유의 소박하고 정감 어린 풍광에 금세 매료되고 말 것이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아기자기한 마켓도 열린다.

뤰데스하임 최고의 명물은 '독일에서 가장 예쁜 골목길'을 자처하는 드로셀가세(Drosselgasse)다. 일명 '티티새 골목'이라 불리는 좁은 골목길 곳곳에는 아기자기한 기념품 가게들이 늘어서 있다. 브라스밴드의 경쾌한 폴카 연주와 노래도 끊이지 않는다. 따라



곤돌라에서 내려다본 포도밭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많은 뤼데스하임 언덕길

서 뤼데스하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골목길 이곳 저곳을 걸어보는 게 제격이다. 기념품 가게로 들어가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도 좋다. 뤼데스하임의 권할만한 기념품으로는 각종 가죽 제품을 비롯해 값이 싸고 색상도 다양한 스카프, 원목으로 만든 뼈꾸기시계, 독특한 모양의 뤼데스하이머 커피잔 등이 있다.

고급 '화이트 와인'의 명산지

뤼데스하임에서 꼭 해봐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상큼한 과일 향이 나는 '뤼데스하임 와인'을 맛보는 것이다. 골목길을 걷다가 지치면 마음에 드는 카페로 들어가 와인을 마시거나, 뤼데스하임에서 만들어진 브랜디인 '아스바흐 우어알트(Asbach Uralt)'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아스바흐는 1892년부터 뤼데스하임에서 만들기 시작했으며 알코올 도수는 40도다. 뤼데스하임의 와인은 그냥 보통 와인이 아니다. 바로 이곳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슬링(화이트 와인)의 명산지이기 때문이다.

화이트 와인의 주요 품종으로는 샤르도네(Chardonnay), 리슬링(Riesling), 쇼비뇽 블랑(Sauvignon Blanc), 슈냉 블랑(Chenin Blanc), 세미용(Semillon)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뤼데스하임이 속한 '라인가우(Rheingau) 지역에서는 고급 리슬링을 생산하고 있다. '라인강 유역의 와인 산지'를 의미하는 라인가우 지역은 호흐하임(Hochheim)부터 로르히(Lorch)까지 약 36km 구간을 가리킨다. 그 중심에 있는 마을이 바로 뤼데스하임이다. 리슬링은 라인강변의 추운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품종이다. 하지만 충분한 햇빛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라인강변의 포도밭들은 대부분 급경사의 비탈면에 조성되어 있다. 조금이라도 햇빛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인가우의 리슬링은 다른 지역에 비해 향은 조금 약한 반면 깊은 맛을 지니고 있다. 입맛에 따라 다르지만, 뤼데스하임을 찾아온 여

행자들은 일반적으로 스위트한 리슬링을 선호하는 편이다.

뤼데스하임 주변에는 아이스 와인으로 유명한 술로스 요하니스베르그(Schloss Johannisberg)를 비롯해 술로스 폴라츠(Schloss Vollrads), 술로스 라인하르트하우젠(Schloss Reinhartshausen) 등 많은 와이너리가 있다. 이 가운데 술로스 폴라츠는 관광명소로도 유명하다. 이곳은 세계 곳곳에 현존하는 와이너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이다. 1211년에 와인을 만들어 수도원에 판매했다는 전표가 800년이 넘는 역사를 대변한다. 술로스 폴라츠의 와인은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직접 찾아와서 맛을 보고 그 후기를 남겼을 정도로 유명하다.

홍겨운 폴카 선율이 끊이지 않는 골목길

뤼데스하임에는 리슬링 말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다. 커피 특유의 쓴맛보다 톡 쏘는 맛이 더 강한 '뤼데스하이머 커피'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뤼데스하이머 커피를 주문하면 종업원이 테이블로 재료(아스바흐 미니어처 1병, 각설탕 3개, 커피, 휘핑크림)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는 잘록하게 생긴 커피 잔에다 아스바흐 미니어처를 붓고, 각설탕을 넣은 후 불을 붙이고, 커피를 부은 후에 휘핑크림을 얹으면 순식간에 뤼데스하이머 커피가 완성된다. 커피의 쓴맛과 생크림의 단맛, 알코올 도수 40도의 아스바흐가 만들어내는 맛은 과연 어떨까?

뤼데스하임의 중심가인 드로셀가세의 노천카페에서 홍겨운 시간을 보낸 여행자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골목에서 빠져나와 라인가우 와인박물관에 들르거나, 곤돌라를 타고 니더발트 전망대까지 올라가면서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과 라인강의 절경을 감상한다. 곤돌라가 도착한 곳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게르마니아 여신상이 나타난다. 38m 높이의 이 여신상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호텔과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는 뤼데스하임어 술로스



니더발트 전망대에 있는 게르마니아 여신상





드로셀가세의 간판에 등장하는 포도송이와 티티새



스위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 살았다는 저택



뤼데스하임과 니더발트 사이를 오가는 곤돌라

이긴 프로이센 왕국의 빌헬름 1세에 의해 세워졌다. 니더발트 전 망대에서 뢰데스하임 중심지까지는 포도밭 사이로 구불구불한 오솔길이 이어져 있다. 올라갈 때는 곤돌라를 타고, 내려올 때는 포도밭 사이로 천천히 걸어서 내려오는 재미가 꽤 쏠쏠하다. 이 길은 독일의 음악가 요하네스 브람스가 즐겨 걸었다 해서 '브람스의 길(Brahmsweg)'이라 불린다.

독일 가곡 '로렐라이'의 배경지

세계 각국의 수많은 여행자들이 뢰데스하임을 즐겨 찾는 이유는 또 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하이네의 시로 유명한 로렐라이 언덕이 있기 때문이다. 라인강의 얼굴과도 같은 로렐라이는 뢰데스하임과 장크트 고아르스하우젠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로렐라이'하면 강변에 우뚝 솟아있는 높이 134m의 암벽을 가리키지만 독일 가곡 '로렐라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독일의 후기 낭만파 시인인 브렌타노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작품의 소재

로 삼은 '라인강 설화'가 '로렐라이'의 원조격이다. 하인리히 하이네는 이 설화를 바탕으로 시를 쓰고, 프리드리히 질허는 곡을 붙였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독일 가곡 '로렐라이'다.

'프랑스인의 머리에 독일인의 마음을 가졌던 시인'이라 불리던 하인리히 하이네. 라인강변의 뢰셀도르프에서 유태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라인강을 '마음의 고향' 또는 '평온한 안식처'로 삼았다. 누구보다 라인강을 사랑했던 시인 하이네. 파리 몽마르트르 묘지의 그의 묘석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새겨져 있다.

"언젠가는 길에서 지칠 나그네의 마지막 휴식처는 어디일까 / 남국의 야자나무 그늘일까 / 아니면 라인강변의 보리수나무 아래일까". 뢰데스하임은 분명 고즈넉하고 멋진 여행지이지만 라인강 유람선의 주요 승선지로도 유명하다.

라인강은 독일을 대표하는 긴 물줄기다. 알프스 산자락에서 발원해 유럽의 여러 나라를 지나는 라인강의 길이는 약 1,230km. 이 가운데 약 700km가 독일에 속해 있다.

뤼데스하임 언덕길의 노천 카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중북부 라인계곡'

라인강은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인해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작가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이네를 비롯해 괴테, 빅토르 위고, 바이런 등과 같은 세계적인 작가들이 라인강의 절경을 노래했다. 라인강은 쾰른에서 마인츠까지 이어지는 약 180km의 유람선 운행구간이 아름답다. 특히 '마인츠 - 뤼데스하임 - 코블렌츠'를 잇는 약 90km 구간이 최고의 절경을 자랑한다.

라인강을 끼고 있는 라인계곡은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특히 '중북부 라인계곡(Upper Middle Rhine Valley)'에 오래된 고성과 예쁜 마을이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난 2002년에 그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중북부 라인계곡'은 독일 라인란트팔츠 주의 빙엔에서 코블렌츠까지 약 65km 구간을 가리킨다. 이 구간에 로렐라이 언덕이 있으며, 빙엔은 뤼데스하임의 이웃 마을이다.

독일 여행, 특히 뤼데스하임을 찾아온 여행자라면 아무리 일정이 빠듯하더라도 한 번쯤은 유람선을 꼭 타 봐야 할 일이다. 오래도록 간직할 만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강 언덕의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펼쳐진 포도밭, 협곡 곳곳에 세워진 중세의 고성들, 따사로운 햇살을 벗 삼아 유람선 갑판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여유로운 모습 등 어느 것 하나 낭만적이지 않은 게 없다. 일명 '로맨틱 라인'이라 불리는 마인츠 - 코블렌츠 구간의 유람선 소요시간은 약 5시간이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여행자라면 뤼데스하임에서 장크트 고아르스하우젠까지의 구간을 선택해도 좋다. 이 구간에서는 로렐라이 언덕, 팔츠그라펜슈타인성, 슈탈레크성을 비롯한 많은 고성들을 볼 수 있다. 뤼데스하임에서 장크트 고아르스하우젠까지는 약 30km이며, 유람선으로는 약 2시간이 소요된다. 유람선 안에서는 간단한 음식, 커피, 와인, 맥주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동안 유레일패스 소지자는 KD라인에서 운영하는 유람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20%만 할인을 해주고 있다. ㉔



TIP

라인 강변의 아름다운 도시들

영국하면 템즈강, 프랑스하면 세느강이 연상되듯 독일을 얘기하면서 라인강을 빼놓을 수 없다. 독일을 대표하는 주요 도시들, 다시 말해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마인츠, 코블렌츠, 쾰른, 뒤셀도르프 등이 라인강의 본류나 지류 연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일반 여행자들이 기차 또는 라인강 유람선을 타고 가볍게 둘러볼 수 있는 도시로 마인츠, 코블렌츠, 쾰른 등을 꼽을 수 있다.

*마인츠 : 마인츠는 라인강과 마인강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다. 따라서 오랜 옛날부터 라인강 뱃길을 통해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라인강 유람선을 이용해 세계 각국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유럽의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마인츠 역시 구시가지에 주요 관광 명소들이 밀집되어 있다. 마인츠 기차역에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이 도시의 상징물인 마인츠 대성당이 눈에 들어온다. 멀리서 보면 마치 튼튼한 성을 연상케 하는 이 성당은 975년에 착공되어 1037년에 완공된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이다. 훗날 보수를 하면서 약간의 고딕양식이 접목되었지만 로마네스크 양식 특유의 견고함이 돋보이는 멋진 성당이다.

*코블렌츠 : 라인강을 끼고 있는 작은 도시 코블렌츠 역시 독일 소도시의 고즈넉한 정취를 즐기기에 좋은 도시다. 구시가지의 플라 광장과 윈츠 광장이 코블렌츠 여행의 중심지다. 지리적으로는 라인강과 모젤강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코블렌츠는 그리 큰 도시가 아니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반나절 정도의 시간으로 주요 명소들을 가볍게 돌아볼 수 있다. 그래도 빼놓지 말고 꼭 봐야 할 곳으로는 코블렌츠 중앙역에서 기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엘츠성을 첫 손에 꼽을 수 있다.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는 이 성은 조용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쾰른 : 쾰른은 로마인들에 의해 발전한 도시다. 당시 이 지역은 '식민지'라는 뜻인 '콜로니아(Colonia)'라 불렸는데 오늘날의 '쾰른'이라는 도시 이름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쾰른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쾰른 대성당이다. 훌륭한 전망대 역할을 하는 쾰른 대성당 첨탑에 오르면 쾰른 시내 전경과 라인강 물줄기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쾰른 대성당 옆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호에 거리가 있다. 보행자 전용도로인 호에 거리 곳곳에는 기념품 가게와 음식점, 노천카페를 비롯해 쾰른의 명물 가운데 하나인 '오 드 콜로뉴' 향수 전문점들이 늘어서 있다. '오데콜롱'이라는 프랑스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오 드 콜로뉴'는 쾰른에서 생산되는 향수의 이름이다.

선선한 바람,
부서지는 파도가 가져다준 행복
유쾌한 자매들의 ‘가을 바다 여행기!’

김경원 시흥중학교 주무관과 자매 김순옥, 김순남 회원



김순옥

여자에게 자매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나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속속 꿰고 있는 존재이자,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친구로, 때로는 인생의 매순간을 함
께한 나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 나를 성숙하게 만
들어준 스승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오늘의
주인공인 자매들의 대화 속에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표현이 많았다. 오롯이 하나가 된 자매들
의 시간! 그 즐거운 순간을 따라가 보자.

글. 김유리 사진. 권대홍

세월이 쌓일수록 더해지는 애뜻함

가을장마 예고로 뒤숭숭한 아침이었다. 누구나 그렇듯 여행에서
많은 날을 기대하는 것이 사람 마음인데 출발지인 서울의 아침은
매우 흐리기만 했다. 8남매 중 막내라는 사연 의뢰자 김경원 시흥
중학교 주무관은 모처럼 언니들과 하는 여행이 알맞은 날씨 때문
에 어그러지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그녀는 <The-K 매거진>에 보낸 사연에서 “8남매 중 네 자매가
교직원공제회 회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몸담은 공통점 때문인지
대화도 잘 통하고 만나면 즐거운 사이인데 각각 강원도, 전라도,
경기도에 살고 있어 자주 보지 못하네요”라며 언니들을 그리워하
는 마음을 전했다. 울고 웃으며 함께 성장한 자매들이라 모르는
게 없는 사이지만, 각자 가정을 꾸리고 지역을 달리해 살다보니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간절한 막내 동생의 마음이 전해졌을까? KTX를 타고 도착한 오
늘의 여행지 부산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한 발 떨어져 있었다. 함
께 출발한 셋째 언니 김순옥 씨의 얼굴도 한결 밝아졌다. 원주에
서 고속버스로 부산에 도착한 넷째 언니 김순남 씨 역시 언니와
동생을 보자마자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김순남

김경원

갑작스런 태풍 때문에 군산에 사는 다섯째 언니는 합류하지 못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세 자매는 첫 번째 목적지를 향해 차에 올랐다. 자매들이 찾은 곳은 해동용궁사였다.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이곳은 바닷가 바위 위에 세워진 해안가 사찰로 김경원 주무관이 고른 여행지였다. 십이지신상을 지나 입구에 다다르자 춘원 이광수의 시비가 보였다. 시를 읽고 나자 기대감이 한층 커졌다. 동해바다의 풍광을 칭송한 그의 시만큼 용궁사의 감동을 적절히 드러내는 문장은 없어보였다.

바다도 좋다하고 청산도 좋다거늘
바다와 청산이 한곳에 뒀단 말거
하물며 청풍명월이 있으니
여기 곳 선경인가 하노라.

어두운 용문석굴을 지나 108 돌계단을 딛는 발걸음에 묘한 설렘이 전해졌다. 귀에 들려오는 파도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드디어 탁 트인 풍광이 자매들을 맞이했다. 상상 속 용궁을 본 듯 절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떠려야 땔 수 없는 우리, 가족

세 자매는 산책을 하듯 용궁사 곳곳을 거닐었다. “용궁사는 처음 이네요. 부산에 몇 번 와보긴 했지만 여긴 일정이 맞지 않아서 오지 못했거든요.” 김경원 주무관이 파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들 역시 동생이 바라보는 넓은 바다를 함께 바라봤다. 기암괴석 위로 밀려오는 파도와 대웅전의 알록달록한 처마가 조화롭게 어울리며 절의 정취를 느끼게 했다. 때맞춰 흐릿했던 하늘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다음 코스는 바닷가 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해운대 해수욕장이었다. 바다에 도착한 자매들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모래감촉에 추억이 하나둘 떠올랐다.

“어릴 때 셋째 언니는 제 롤모델이었어요.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언니의 영향이었죠. 간호대학을 다니는 언니가 저는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넷째 언니 김순남 씨가 말했다. 배턴을 넘겨받듯 셋째 언니 김순옥 씨가 말을 이었다. “저는 교사였던 둘째 언니의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 형제는 어려서부터 서로를 챙기는 데 익숙했어요. 너나 할 거 없이 아래 동생을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죠.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사랑받은 건 우리 막내였어요.”





언니의 이야기에 김정원 주무관이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리사랑이랄까요. 생업에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가 우리를 자식처럼 돌봤어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야 한다며 둘째 언니는 전주 시내에 있는 학교로 동생들을 전학 시키기도 했죠.”

자매들의 수다엔 자리에 없는 다른 자매들의 이야기도 더해졌다. 8남매의 역사는 누구 하나를 빼놓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막내의 언니들 자라는 계속됐다.

“나이 차가 큰 언니들이 있다 보니 전 학창시절이 늘 풍요로웠어요. 언니들이 사주는 옷이나 물건들은 서울에서 유행하는 최신 상품들이었거든요. 언니들 덕에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항상 재미있었어요.”

자매들의 대화는 늘 고마움으로 마무리됐다. 누구 때문이 아닌 덕분애가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왔다.

“시골이었지만 부모님이 남달랐어요. 자식들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깨어있는 분이셨어요.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도 없으셨고요. 매 한번 들지 않고 8남매를 키우신 분들이예요. 어릴 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니 우리 부모님이 대단한 분이였다는 걸 깨달았죠.”

자매들의 넉넉한 미소와 여유의 원천은 역시 부모님이었다. 베토벤이 말한 ‘훌륭한 부모의 슬하에 있다면 사랑이 넘치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은 먼 훗날 노년이 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딱 들어맞는 가족이었다.

여자 셋이 모이면? 뭐든지 즐겁다!

세 자매는 다음 장소로 부산의 명소인 국제시장과 강동시장을 찾았다. 영화 속 배경이기도 했던 국제시장은 전시 물자를 팔기 위해 사람들이 장터로 몰리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른바 ‘도폐기 시장’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현재는 기계 공구·전기 전자류·주방 기구·의류가 주요 품목인 도·소매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미로처럼 얽힌 골목에 식용품·농수축산물·공산품 점포들이 들어서 있다. 근처에는 관광 명소인 광복로, 용두산공원, 보수동 책방골목, 임시수도 기념관, 근대역사박물관 등이 소개한다. 세 자매는 옛 추억을 따라가듯 시장 곳곳을 구석구석 누볐다. 가장 활기를 띠고 시장을 구경한 사람은 넷째 언니 김순남 씨였다.

“은퇴를 했지만 여러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 장을 보러 갈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장을 가게 되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죠.”

알찬 일정을 소화한 자매들은 시장 구경 후 달맞이 고개에 위치한

횃집을 찾았다. 분위기 있는 야경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였다. 횃집은 어디에나 있지만 바다를 보며 도란도란 대화하는 자매들의 저녁식사는 감회가 새로웠다. 이들은 모처럼 함께한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간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제는 누군가의 부인이 되어 엄마로, 며느리로, 사회인으로 지내다 보니 자매들만의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진 까닭이었다.

“1년에 몇 번은 꼭 보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가족들을 동반하고 모이는 일이 많죠. 오늘처럼 자매들만 모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막내가 참 고맙네요.”

동생의 예쁜 마음을 헤아린 셋째 언니 김순옥 씨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식사를 마친 자매들은 마지막 일정으로 부산의 야경 명소를 택했다. 최근 부산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인기 만점의 ‘더 베이 101’이었다.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이곳은 부산 야경 필수코스인 고층의 마린시티 빌딩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또, 인생사진을 건질 수 있는 것은 덤이다. 빌딩 숲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이색적인 장소에서 유쾌한 자매들의 추억이 더해졌다.

자매의 시간은 계속된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다. 호텔에서 간단히 조식을 해결한 자매들은 1박 2일 일정의 마지막 코스로 향했다. 목적지는 최근 부산에서 문을 연 미디어 전문 미술관 ‘뮤지엄 다’였다. 초고화질 LED 발광 다이오드를 바닥과 천장, 벽면에 설치해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독특한 미술관이었다.

자매들은 입구에서부터 감탄을 터트렸다. 황홀한 미디어 작품을 보는 세 자매의 미소에서 천진한 소녀가 보였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감사, 사랑이 넘치는 어여쁜 소녀들의 모습이였다. 셋째 언니 김순옥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작고하신 소설가 최명희 선생이 여고시절 국어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종종 생각나요. 어디에서든 배울 것이 있고 느낄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말하는 입모양 하나도 잘 살피면 각기 다른 느낌이 전해지고, 하찮게 여기는 잡지에서든 내가 배울 것이 있다고요.”

자매들은 그렇게 성장했다. 서로에게 배우고 베풀며 함께 느끼고 공감했다. 견고한 유대감과 믿음 속에 자리 잡은 ‘동근연지(同根連枝, 같은 뿌리와 잇닿은 나뭇가지, 즉 형제자매를 일컫음)’의 정처럼, 일방통행 없는 인간사에 서로를 위하며 우애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을 세 자매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자매들의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 가을 오롯이 기억될 특별한 부산여행의 추억과 함께. (K)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잠깐의 여행이 큰 힐링으로”

셋째 김순옥(부일여중 보건교사 은퇴)

손자를 돌봐주며 정신없이 지내던 중에 동생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여행을 가자고. 처음에는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잘 왔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동료들 모임을 나가면 이번 여행 이야기를 하려고요. 우리 아이들도 모두 교사인데 아름다운 동행의 문을 두드려 보라고 꼭 전하고 싶어요.

“우리끼리 수다 삼매경, 태풍을 뚫고 온 보람이 있었어요”

넷째 김순남(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간호사 은퇴)

가을장마에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이 많았어요. 원주에서 출발하는 전날까지도 갈팡질팡 했었지요. 하지만 막상 와서 언니 동생을 보니 역시나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모여 수다를 떨다 보면 밤을 셀 만큼 할 말이 많은 사이인데, 자리 한번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동생에게 고맙네요. 짧은 여행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크게 받은 사랑, 더 크게 돌려주고 싶어요”

막내 김경원(시흥중학교 주무관)

엄마가 되고 아이들을 키워보니 언니들이 제게 준 사랑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요즘 제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돌려 드려야 하나 자주 생각하던 중에 이런 소중한 기회가 생겨 기쁩니다. 언니들과 함께해서 더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교직원공제회 덕분에 예쁜 추억을 만들게 되어 고맙습니다.

자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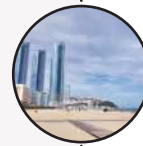


해동용궁사

해동용궁사는 1376년 공민왕의 왕사였던 나옹대사의 창건으로 남해 보리암, 양양 낙산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한 곳이라 불린다.

☎ 051-722-7744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용궁길 86



해운대 해수욕장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 통일신라시대의 문인 최치원이 소나무와 백사장이 어우러진 이곳의 경치에 감탄해 자신의 호인 ‘해운’에서 따서 이름 지었다. 조선팔경 중 하나로도 꼽히기도 한다.

☎ 051-749-76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62번길 47



뮤지엄다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미디어 전문 미술관. 부산, 경남 지역 문화 예술 전파의 초석이 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

☎ 051-731-330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20



선창횟집

부산의 다양하고 신선한 활어를 맛볼 수 있는 회 전문점. 해운대 바닷가 멋진 전망을 즐기며 식사를 할 수 있다. 넓은 공간의 휴과 내실이 층별로 나누어져 있어 모임 장소로도 인기다.

☎ 051-747-747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62번길 67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웃을 일 많은 하루하루다. 시도 때도 없이 상냥한 얼굴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날것 그대로의 감정을 드러내기란 쉽지 않은 노릇. 분노가 치솟아도 우울감에 휩싸여도 일단 얼굴은 맑음이다.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나는, 이 불편부당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대하여. 글. 편집실



현대인에게 씌워진 스마일 마스크

환하게 웃는 얼굴에 말투는 친절하며 매사 사려 깊을 것. ‘좋은 게 좋은 것’의 미덕까지 탑재하고 있다면 금상첨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 타인의 생각과 시선에 어느 정도는 안테나를 세워야 한다. 그래, 밝고 긍정적이라 좋다. 하지만 실은 조금 버겁다.

그렇잖아도 마음대로 못 하고 사는 것 투성인데, 내 감정까지 꺾고 다듬고 가면을 씌워 드러내야 한다니.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눈물 마를 날이 없다.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이런 의무 아닌 의무는 일종의 감정노동이다. 직업군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정도가 다르긴 해도 늘 밝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강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터. 급기야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심리학 용어까지 생겨났다. 이는 일본 쇼인여대 나스메 마코토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웃음 뒤에 우울감이 가려져 있다는 뜻. 가면성 우울증이라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 직장인 41%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겪는다는 조사도 있다. 영업이나 서비스업 종사자, 경쟁이 극심한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수치는 더 치솟는다. 그러니 겉으로 보이기에 긍정적이라고 해서 내면까지 같은 모습일 거라 속단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곱으면 몸도 시름시름 병든다

사람의 감정은 매우 복잡미묘하다. 제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확 확 움직일 수도 없다. 그런데 불쑥불쑥 올라오는 화, 슬픔, 분노, 절망 같은 감정을 꺾꼭 눌러야만 한다면, 당연히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하지 못하는 탓이다.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내는 감정의 괴리감이 클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 게다가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 서툴고 무감각해질 위험도 있다.

이러한 불안 상태는 다양한 증상으로 표출된다. 식욕과 성욕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생길 수 있으며 매사 무기력하게 된다. 또한 면역체계와 호르몬 분비에도 이상이 생겨 두통, 소화불량, 감기,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심할 경우 자살충동을 느끼기도 하는데, 실제로 강도 높은 감정노동이 요구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자살충동 정도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치미는 감정, 인정할 건 인정하자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개인이 풀어야 할 숙제로 떠넘기는 건 가혹하다. 분명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 문화적 배경, 사회적 구조가 존재하는 까닭이다. 그런 이유로 지난 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위 ‘갑’의 입장에 있는 고객이 익명성에 기대 상담원 등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처벌을 받는 법이 시행됐다. 물론 스마일 마스크를 벗어 던지겠다는, 혹은 마스크 안과 밖의 괴리를 좁히려는 스스로의 의지도 중요하다. 시작은 제대로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 마냥 참는 게 능사가 아님은 분명하다. 표현하지 않고 묵한다고 사라진다면 몰라도, 실은 차곡차곡 마음에 돌덩이처럼 얹히는 게 현실이다.

치유의 핵심 열쇠는 본인에게 있다. 화, 분노, 우울을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어떻게 느끼는지, 무슨 문제를 겪고 있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우선, 해소 노력에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가깝게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짐은 한결 가벼워질 테다. 자신이 어떨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파악해 취미나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도 우울감 완화에 이롭다. 그리고 기억하자. 어떤 상황이라도 우선순위는 항상 자기 자신임을. 가면이 가려져 못 보고 있었을 뿐, 행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K)

‘워라밸’을
찾아라!

Work and Life Balance



‘Work and Life Balance’, 이른바 ‘워라밸 시대’다.
인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사회 전반에 트렌드처럼 번지기 시작한 워라밸 열풍은 라이프 스타일,
소비 트렌드, 근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궁금하다. 워라밸,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할까?
글. 공진수(동행심리상담센터 센터장)



LEISURE
TIME



**에너지 소진이 아닌
활력충전을 위한
위라벨**

현대는 에너지 소진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디지털 발달로 삶의 속도는 매우 빨라졌으며, 빠른 삶의 속도 속에서 많은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에너지가 쉽게 소진되기 마련이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개인의 의지나 역량을 떠나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고, 인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일과 휴식을 양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서서히 균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공제회원들을 위한 일과 삶의 균형 찾기, 지금부터 단계별로 시작해봅시다.

**Step by Step! How to
'위라벨'**



**교직원공제회 심리상담 프로그램
<The-K 마음쉼> 안내**

-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현직 회원
- 상담 신청: The-K 마음쉼 전용 홈페이지
(www.ktcu-hue.com), 모바일앱,
전화(1566-5228)로 신청 가능
- ※모바일앱: Play 스토어 접속 ▶ "마음쉼" 검색
▶ 설치(iOS 구축 예정)
- 상담 시간: 오전 9시~오후 9시(월~토요일)
- 상담 방법: 1:1 대면상담, 전화상담, E-mail 상담
- 상담 장소: 전국 상담센터 및 신청 회원이
원하는 장소(상담사와 협의 후 결정,
자택 제외)
- 상담 부문: 교권침해, 직무 스트레스,
우울·불안·분노, 부부 문제,
자녀양육, 가족 내 소통 등

*모든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해
회사 및 타인에게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The-K 마음쉼> 프로그램은
QR 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고민을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The-K 마음쉼>으로
즐거운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

**'위라벨'을
찾아드립니다**

STEP 1. 열심히 일하고 쉴 만큼 쉬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휴식하는 삶의 패턴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쉬는 것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근 후에도 일을 생각하고, 휴가를 가서도 일을 걱정하며, 휴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과 휴식을 분리해보세요. 휴식 중에도 일만 생각하는 경우, 삶의 균형은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쉴 만큼 쉬는 패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STEP 2. 자신만의 재충전 방식 만들기

휴식은 잠을 보충하거나 음식을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삶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경험과 지적 탐구 등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휴식은 신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 정서적인 것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완성됩니다.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휴식을 원한다면, 일상을 떠나서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자신만의 재충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3. 우선순위를 정하고, 타이밍을 맞추기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급한 일과 꼭 해야 할 일, 중요한 일과 하고 싶은 일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집중해서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지 못하여 일에 떠밀리는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잘못 맞추거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면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삶의 균형도 깨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지요. 삶의 균형이 허물어지고 있다면, 수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차분히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돈, 시간, 건강 그리고 인간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위의 조언처럼 단계별로 변화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혼자서 위라벨을 찾는 게 힘들다면, 전문가 또는 인생 멘토를 찾아보세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K)



The-K 은빛동행 청바지 콘서트

다시, 청춘을 시작하다

2천여 명의 청춘이 한자리에 모였다. 세상에서는 '정년퇴직한 선생님'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것은 청춘이 젊은 날로의 회귀가 아니라는 것. 나이 때문에, 직업 때문에 묻어뒀던 내 안의 그 무언가를 밖으로 꺼내놓는 일이라는 것. 'The-K 은빛동행 청바지 콘서트' 현장에는 오랜만에 제자리를 찾은 청춘들이 반짝이며 빛을 내고 있었다.

글. 박혜인 사진. 김도형





청바지를 입고 모인 청춘들

9월 3일 화요일, 부산 벡스코의 오디토리움. 비가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는 곳은 날씨를 뚫고 청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The-K 은빛동행 청바지 콘서트'를 찾아온 이들이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The-K 은빛동행 청바지 콘서트'는 교단에 있다가 은퇴한 특별회원들이 여전히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준비한 문화복지서비스의 일환이다.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의미를 담아 '청바지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다. 이를 살려 콘서트의 드레스코드 역시 청바지로 정했다. 청바지가 옛 추억과 젊음을 상징하는 패션 아이템이자, '지금 이 순간을 청춘으로 즐기길 바란다'는 콘서트의 취지를 톡톡히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공연까지는 한 시간도 넘게 남은 시작임에도 로비는 이미 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다. 하지만 질서 정리를 위한 안내방송 덕분에 혼란은 없었고, 기념품으로 청바지 에코백을 받은 사람들의 설렘 가득한 목소리만이 들려왔다.

공연 30분 전부터 시작된 그룹 허밍스테레오의 사전공연 또한 관객들을 공연장으로 초대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로비에 들어선 사람들은 안내에 따라 티켓과 에코백을 받아들이고, 포토존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객석에 자리했다.

어제와 오늘을 잇는 시간

이날 콘서트에는 사전 응모에 당첨된 1천 150명(동반인 포함 2천 300명)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부산이나 경남 지역 회원뿐만 아니라 순천, 통영, 천안 등에서 청바지 콘서트와 부산 여행을 겸해 찾아온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설렘을 앞

에 두고 막을 올린 이들은 팝페라 가수 포엣. 포엣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수록곡인 <지금 이 순간>, 팝페라 버전으로 편곡한 <My way>, 칸초네 <사랑의 맹세> 등을 열창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시작부터 뜨거워진 열기에 포엣은 "여러분들께서 다시금 청춘이 아니라 처음 청춘을 맞이하신 것 같다"며 "청춘은 바로 지금,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로 응원을 보냈다.

뮤지컬그룹 아트레볼루션의 <댄싱퀸> 무대가 이어진 뒤,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이재용 아나운서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콘서트가 시작됐다. 청바지 콘서트에는 다른 콘서트에서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 가장 멋지게 드레스코드를 소화한 관객을 찾는 '베스트드레서 시상식'이다. 스태프들이 공연 전 로비에서 1차 후보군을 찾아 사진 촬영을 해두고, 무대에서 이들의 사진을 공개해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사람에게 베스트드레서상을 수



여하는 방식이다. 무대 위 스크린에 후보 여섯 팀의 사진이 오르지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줄무늬 티셔츠와 청바지로 맞춘 커플룩, 장발과 긴 수염이 포인트가 된 청·청 패션, 부산 바다의 푸른빛을 닮은 부부의 옷까지 누구 하나 우위를 가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자의 요청으로 직접 무대에 오른 여섯 팀은 저마다의 의상을 뽐냈지만, 인터뷰를 통해 모두 같은 말을 했다. “교직에 있으면서 늘 정장을 입었는데, 이제는 정장에서 탈피해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 무대 위도, 객석도 한마음이 된 덕분에 여섯 팀 모두에게 상품권이 주어졌다. 심지어 객석에서는 ‘나도 베스트드레서상’을 외치며 기꺼이 무대 위로 나선 이들까지 있었다. 물론 핵심은 같았다. “남은 인생은 마음대로 즐겁게 살아봅시다!”

청춘을, 오늘을 노래하다

이번 콘서트의 초대가수는 남녀노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관객들과 같이 호흡하며 공연하기로 잘 알려진 가수 변진섭과 김연자였다. 그리고 지난해 첫 청바지 콘서트를 함께했던 가수 이문세가 올해도 함께했다. 가장 먼저 무대에 선 변진섭은 〈그대 내게 다시〉, 〈희망사항〉, 〈너에게로 또 다시〉, 〈새들처럼〉의 히트곡을 선보인 뒤 앙코르 곡으로 〈비와 당신〉을 선택했다. 그의 노래가 끝나자 이재용 아나운서는 “변진섭 씨가 〈희망사항〉으로 활동하던 당시에 저는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을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오늘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바람을 전했다. 최근 새롭게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김연자가 배턴을 받았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계속 노래만 해와서 청춘이랄 게 없었던 것 같다”고 운을 떼었다가 “하지만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모습들 자체가 청춘이 아니었나 싶다”는 말로 큰 공감을 얻었다.



김연자는 〈10분내로〉, 〈진정인가요〉에 이어 가요메들리를 부르며 객석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크게 유행한 〈아모르파티〉로 공연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달궈진 객석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준비한 영상이 조용히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은 청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연 직전 로비에서 촬영된 사전 인터뷰 영상 속에서 사람들은 ‘도전’ ‘지금’ ‘꿈’ ‘설렘’ ‘의지’ ‘시작’ ‘여행’ ‘힘’ ‘60부터’와 같은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다. 관객들이 소소하게 웃고 “지금 즐길 수 있으면 청춘 아니겠습니까?”라는 사회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콘서트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무대에 등장한 이문세는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소녀〉, 데뷔곡인 〈나는 행복한 사람〉 등으로 관객들과 추억 여행을 떠났다가 〈알 수 없는 인생〉으로 다시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그는 실



제로 교직에 있다가 정년퇴직한 장인, 장모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자연과학을 가르치시던 분들이 수필과 시를 쓰고, 동양화를 그리고 계십니다. 95세인 지금도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학교에 계실 때보다 열 배는 더 행복해 보이세요.” 그는 자신 역시 “잘 놀다 잘 가자”는 생각을 하게 됐으며 “지금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객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와 함께 콘서트의 마지막을 장식할 <붉은 노을>이 울려 퍼졌다.

사전공연부터 마지막 앙코르까지 3시간에 달하는 콘서트에도 청춘들은 지치지 않았다. 미처 아쉬움이 남아있는 공연장에는 이전과는 조금 달라질 첫걸음을 응원하는 피날레 음악이 잔잔했다. 지금껏 묵묵히 걸어온 이들의 인생 제2막을 격려하고, 그 길의 동반자가 되고자 마련한 이번 콘서트의 또다른 선물이었다. ㉠

Mini Interview

The-K 은빛동행콘서트

“앞으로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하길”

목석원(고객지원팀 차장)



오늘 오신 모든 분이 청바지를 입고 추억을 회상하며 ‘오늘이 가장 멋진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청바지 콘서트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연 2~3회로 횟수를 늘리거나,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회원님들이 더욱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체험의 기회가 계속 이어졌으면”

민남식(대원초), 조순이(두실초)



최고의 가수들이 온다는 소식과 주변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말이 너무 멋졌어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문화 체험의 기회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다시 다잡는 계기”

조갑선(반안초), 오두환



오늘 하루 마음껏 즐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기대보다 더 에너지가 넘치는 공연이라 모처럼 기분 전환이 됐습니다. 퇴직하고 제 자신의 마음이 늘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나를 다시 다잡는 계기가 됐어요. 전에도 청바지를 즐겨 입었지만 앞으로는 더 즐겨 입으려고요.

“그림 한 점 하고 가세요”

라 마 다 프 라 자 제 주 호 텔 ‘미 술 식 당’

공간의 이유 있는 변신 특별한 갤러리가 된 중식당



삶의 심표가 필요할 때 사람들은 여행을 한다. 그리고 평범한 여행에서 나만의 감성을 찾았을 때 비로소 특별한 휴식을 누렸다고 이야기한다. 오감만족을 넘어 감성과 힐링이 더해진 곳일수록 마음에 오래 머물기 때문이다. 여기 중식당을 갤러리로 바꿔 편안한 휴식과 따뜻한 감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한 호텔이 있다. 소소한 제주 여행에서 행복한 추억을 남겨줄 특별한 공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미술식당〉에 다녀왔다.

글. 김유리 사진. 권대홍



모두의 호텔, 함께하는 갤러리

여행이 단순히 휴식에 머물던 시대는 지났다. 다채로운 문화 탐방은 이제 여행의 중요한 트렌드가 된 세상이다. 여기에 발맞춰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이 제주도민과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메세나의 일환으로 아트 갤러리 〈미술식당〉을 오픈했다. 이색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얼마 전까지 호텔에서 운영하던 중식당이였다. ‘공간재생’과 ‘문화 서비스’라는 주제로 기존의 인테리어를 유지하며 탄생한 갤러리는 공간에 어울리는 작가의 작품을 선별하고 배치하는 데 공을 들인 흔적이 엿보였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공공갤러리 미술식당. 이곳의 첫 번째 전시, [소확행 - 글과 그림이 주는 휴식] 展은 말 그대로 관람객이 여행과 일상의 한 자락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이 과감한 변화를 추진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김정태 대표는 미술식당에 대해 ‘문화가 있는 호텔’이라는 틀 아래서 진행된 재미있는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했다.

“‘제주’라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 글, 그림 작가 26팀과 함께 꾸민 아트 갤러리&문화 공간입니다. 지역사회에 문화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공공사업인 ‘메세나매칭그랜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어요. 메세나매칭그랜트 사업은 제주도와 제주메세나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인데 이번 갤러리 전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주민, 여행객 모두 일상과 여행의 ‘소확행’을 느낄 수 있도록 했죠.”

호텔 속 작은 올림을 주는 미술식당이 문을 열게 된 데는 먼저 시도한 문화사업인 아트로드가 바탕이 됐다. 작년, 호텔의 1차 아트 갤러리의 콘셉트는 로비 지역의 긴 복도를 활용한 아트로드 프로젝트였다. 제주 올레길에서 영감을 얻어 진행한 아트로드는 호텔 방문객과 직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독특한 구조, 개성 넘치는 갤러리

“우리 호텔은 특색 있는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연회장 복도와 로비 복도가 마치 유람선의 선체처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고객 분들이 호텔을 들어서서 객실에 다다를 때까지 또 하나의 갤러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한 거죠.”

호텔 임직원은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정성을 들여 작품마다 친근한 설명을 곁들였고, 작품 관람을 위한 아트로드 지도 리플릿을 곳곳에 배치해 두는 등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이곳엔 제주도를 대표하는 화가인 강요배 작가부터 강동언, 이강소, 오이량 등 유명 작가들의 회귀하고 특색 있는 작품이 상시 전시되고 있다. 성공적인 아트로드 프로젝트에 힘입어 올해 문을 연 2차 아트 갤러리는 ‘글과 그림으로 즐기는 소확행’이라는 콘셉트의 미술식당이었다. 김정태 대표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뉴트로’가 유행인데, 마침 대만의 옛 식당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호텔 중식당 ‘만리향’이 리뉴얼을 예정하고 있어 일정 기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독특한 인테리어와 개별 룸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특색 있는 갤러리로 활용하기에 매력적이라고 판단했죠.”

현재 미술식당에서는 [소확행 - 글과 그림이 주는 휴식] 전시 오는 11월 8일까지 열린다. 문화 예술 단체 파트론과 함께 독립출판계의 인기 있는 글 작가와 그림 작가 총 26개 팀의 1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아름다운 제주의 면면과 일상의 매력을 이야기한 이번 전시는 참여 작가진 또한 다채롭다. 최근 SNS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김수수, 문신기, 홍시아, 콰야 등 14명의 그림 작가와 안리타, 상엽, 박상범, 이광호, 가랑비메이커 등 12명의 글 작가팀이 함께했다.

공간에도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미술식당 프로젝트를 주도한 김정태 대표는 호텔과 갤러리라는 공간이 주는 공통점에 대해 “호텔도 갤러리도 그 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예술이 되고 문화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갤러리뿐 아니라, 서비스를 계획함에 있어서도 그런 제주의 문화, 예술을 담아 내려고 합니다.”





호텔과 미술관은 몸과 마음을 쉬고 정화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그들만의 이야기를 입히고 나니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만의 특별한 색이 드러났다. 미술식당 갤러리는 그 산뜻한 변화의 도화선이었던 것. 품위를 격상시키기 위한 이유로 많은 호텔이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문화가 있는 친근하고 따뜻한 호텔을 모토로 미술 작품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과 문화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호텔은 고전적인 형태로 투숙만 하는 공간에서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각양각색의 호텔이 저만의 색깔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하죠. 우리는 그 시류에서 호텔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고객이 즐거울 수 있는 점점을 찾고자 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미술식당은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가 있는 호텔’이라는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갤러리뿐 아니라, 서비스를 계획함에 있어서도 지역의 문화, 예술을 담아내려 노력한다. 객실과 식음 레스토랑에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객실의 침구와 침대의 편안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에는 배경음악과 조도, 실내 향기에도 휴식과 문화를 녹일 예정이다.

예술을 품은 ‘문화가 있는 호텔’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이 제주도민과 여행객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갤러리를 오픈했다고 했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은 호텔이 품고 있는 비전이 었다. 상업공간에서 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이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을 터, 이 참신한 프로젝트를 추진한 배경엔 어떤 계획이 숨어있을까. 김정태 대표는 담백하게 호텔이 나아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향후에도 ‘문화가 있는 호텔’로 매칭 그랜트 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호텔이지만 공공갤러리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할 예정이고요. 이와 더불어 공공예술을 서비스하는 것에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적극 검토하여, 문화공간으로서 특급호텔의 문턱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고객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술식당은 호텔에서 예술작품을 선보이며 여행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것은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호텔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의 발 빠른 행보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에 잠깐 여유를 부릴 만도 한데 김정태 대표는 이미 다음 한 걸음을 구상하고 있었다. “숙박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그 개념도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단순한 객실 서비스만으로는 고객의 선택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실, 식음, 웨딩, 마이스(MICE - 기업회의 · 포상관광 · 컨벤션 · 전시회)의 분야에 문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녹여낼 예정입니다.”

그는 끝으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이 고객들에게 ‘여행 중에 만난 특별한 선물, 또는 힐링의 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는 진심을 전했다. 지역사회와 문화 그리고 고객을 생각하는 호텔. 이 가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의 <미술식당>에 들러 ‘그림 한 점’하고 가는 건 어떨까.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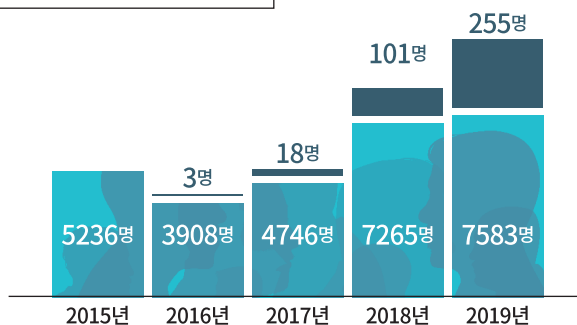
8월 말 퇴직회원에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3999억원 지급·퇴직 회원 53.11% 분할급여금 가입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8월 말로 정년· 명예 등 퇴직하는 회원 4270명에게 총 3999억원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지급했다. 이번 퇴직 회원 중 퇴직급여금을 가장 많이 수령한 회원은 2억4994만여 원을 받는다. 지난 1978년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한 뒤 41년 5개월 동안 1억688만여 원의 원금을 납입하고, 이자로 1억4306만여 원을 지급받는 것이다. 이 같은 퇴직급여금 고액 수령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06년 1억원 이상 수령자가 최초 탄생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최초로 2억원 이상 수령하는 회원이 등장했다. 올해에는 1억원 이상 수령자 7583명, 2억원 이상 수령자가 255명이나 된다. 8월 말 퇴직 청구한 회원 4270명 중 53.11%인 2268명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급여금을 일정 기간 동안 연금처럼 나눠 수령할 수 있는 노후보장형 금융상품이다. 시중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보다 이율이 높은 반면,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적용으로 타 연금형 상품보다 실수령액이 높고 중도해약 수수료, 운용수수료를 비롯한 일체의 수수료가 없으며,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분리과세)과 특별법으로 보장된 높은 안정성과 같은 장점 때문에 퇴직을 앞둔 회원들에게 인기가 많다. 분할급여금은 퇴직 시점에 1인당 1회만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금 내에서 최저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퇴직급여금 1억원 이상 수령자

-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뮤지컬 ‘맘마미아!’ 울산... 10월 21일 ~ 11월 10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함께하는 ‘문화라운지’ 뮤지컬 관람 행사가 천안에 이어 11월 25일 울산에서도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매회 최고의 뮤지컬 배우와 ‘아바’의 음악 그리고 탄탄한 구성까지 더해져 메가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뮤지컬 ‘맘마미아!’의 탄생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공연으로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SK주식회사와 전략적 공동투자 파트너십 체결

한국교직원공제회와 SK주식회사가 9월 10일 여의도 The-K타워 대회의실에서 전략적 공동투자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차성수 이사장, 김호현 기금운용총괄이사와 SK주식회사 장동현 대표이사, 이성형 CFO(재무부부장) 등 양측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SK그룹이 추진하는 글로벌 핵심 신성장 분야 사업에 총 10억 달러 규모의 공동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국내 투자환경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우량 투자 건을 발굴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SK와 협력해 좋은 투자기회를 확보하고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차성수 이사장은 “이번 MOU는 성공적인 기업 M&A를 통해 그룹의 성장을 이룬 SK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본회도 SOC 및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위주의 해외투자에서 투자대상을 다각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베트남 호텔·레저 기업 빈펄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9월 18일 베트남 호텔·레저기업 빈펄(Vinpearl)과 공제회 회원을 위한 롱스테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빈펄의 모회사인 빈그룹의 하노이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과 빈그룹 레 캅 히엡(Le Khac Hiep) 부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베트남 휴양지의 빈펄 호텔·리조트에서 회원들을 위한 롱스테이 할인 서비스 및 각종 프로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한 달 살기 인기 여행지인 베트남을 해외 롱스테이 프로그램 국가로 선정해 회원 만족도를 높이고 특히 베트남 대표 호텔·리조트인 빈펄과의 제휴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성수 이사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롱스테이 프로그램과 같이 고령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Well-aging 사업을 지속하고,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회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꾸준히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The-K예다함상조, 창립 10주년 기념 ‘탱고(TEN GO)’ 이벤트 진행

The-K예다함상조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10가족에게 효도여행을 보내드리는 특별 프로모션 ‘탱고(TEN GO)’ 이벤트를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 기간 상품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총 3천여 만원의 경품이 주어진다. 1등 10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2등 20명에게는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숙박권(2박), 3등 100명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상품가입은 예다함 홈페이지(www.yedaham.co.kr)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The-K호텔 가을 패키지



The-K호텔서울, 2019 가을 와인페어 개최

The-K호텔서울은 10월 12일, 13일 양일간 The-K호텔서울 분수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9시까지(13일은 8시까지) '2019 가을 와인페어(2019 Autumn Wine Fair)'를 개최한다. 이번 와인페어는 평소 시중에서 접하기 어려운 프리미엄 와인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와인 100여 종과 프리미엄 맥주를 시음해보고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자리다. 야외 카페에서는 와인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스페셜 메뉴도 판매한다. 이와 함께 '인스타그램 현장 이벤트'와 '응모권 추첨'을 통해 객실이용권, 뷔페이용권, 와인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입장료는 2만원이며 공제회원, 더케이 가족, 서초구민은 20% 할인된다(신분증·명함 지참). ☎02-571-8100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BOOK·ART·CAFE 패키지 출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가을시즌을 맞아 색다른 레트로 컨셉의 미술 갤러리 '미술식당'과 객실을 패키지로 선보인다. '북·아트·카페 패키지'는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 (뷔페 레스토랑 더블루 또는 제주 다이닝 탐모라), 스포츠 센터 2인 이용권, 미술식당 갤러리 투어, GO GREEN 캠페인 텀블러가 포함된다. 해당 텀블러를 이용하여 호텔 내 베이커리 델리에서 아메리카노를 4회 제공받을 수 있다. ☎064-729-8100

The-K호텔경주, 가을&엑스포 패키지 출시

The-K호텔경주는 '가을&엑스포 패키지'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선보인다. ▲패키지A는 스탠다드객실 1박, 조식 2인 구성이 12만 5000원부터 17만원이며, ▲패키지B는 스탠다드객실 1박, 조식 2인, 엑스포 입장권 2인 구성이 14만3000원부터 18만8천원이다(온돌 객실 5000원 추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운영기간은 10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이다. 이와 함께 단풍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산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제시하면, 호텔시설 이용을 할인받는 '산종아'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식당 전 메뉴 20%, 베이커리 전 품목 10%, 사우나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커피숍에서도 가을을 맞아 매화차, 도화차, 장미차를 판매한다. ☎054-745-8100

The-K설악산가족호텔, 가을맞이 객실 할인

The-K설악산가족호텔은 가을을 맞아 객실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0월 한달 동안 20평 기준 특별가 6만원, 29평 기준 특별가 10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전화예약만 가능하며, 1인 1실 할인혜택



으로 성수기 및 극성수기 기간에는 별도 요금이 적용된다(성수기 : 10월 2~5일, 10월 8일, 10월 금, 토요일, 12월 24일, 12월 30일, 1월 1일 / 극성수기 : 12월 31일). 또한, 장기 투숙객을 위한 '휴스테이 힐링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연에서 편안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롱스테이 고객을 위해 20평형과 29평형을 특별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하고 있다. ☎033-639-8100

The-K지리산가족호텔, 가을의 소리 패키지 출시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판소리예술축제인 '구례동편소리축제'에 맞춰 '가을의 소리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1-객실1실과 아메리카노 2잔이 5만1000원 ~ 6만6000원,
▲패키지2-객실1실과 온천 2인, 조식 2인이 6만5000원 ~ 8만원,
▲패키지3-객실1실과 온천 2인, 석식 2인이 12만1000원 ~ 14만1000원,
▲패키지4-객실1실과 조식 2인, 석식 2인이 13만9000원 ~ 15만9000원이다(17평 기준).

또한 구례지리산호수공원에서 수상레저 프로그램 이용 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제공한다.

☎061-783-8100

The-K Guide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1971년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회원수 81만명, 자산 37조 원, 전국 18개 시도지부와 8개 출자회사(The-K호텔앤리조트, The-K제주호텔, The-K손해보험, The-K저축은행, The-K소피아그린CC, The-K서드에이지, The-K에다함상조, The-K교직원나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축 | 더 풍요로운 노후를 약속합니다

장기저축급여 고이올 저율과세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

- 가입금액 : 최저 3만원부터 최고 90만원까지(6천원 단위로 가입가능)
- 이율 : 연복리 3.74%(2019.9.1. 기준)
- 혜택 : 장기저축급여 가입 시 공제회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장기저축급여분할급여금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고이올 연금형상품

- 가입자격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만료·상병퇴직 및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하는 교직원
- 가입금액 :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 이내 최저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
- 이율 : 연 2.99%(2018.03.01. 기준)
- 지급방식 : 즉시지급형(원리금 균등분할지급), 연지급·월지급 방식 선택 가능
- 장점 : 저율과세(0~3%대), 중도해약수수료 無

목돈급여 현직 회원을 위한 고수익 저축상품

- 가입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 상품종류 : • 부가금형 : 목돈 납입 후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분할 지급, 급여금(원리금) 청구 시 부담금(원금) 지급
 - 예탁형 : 목돈 납입 후 급여금(원리금) 청구 시 부담금(원금)+부가금(이자) 일시 지급
 - 적립형 : 가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 납부, 만기 시 부담금(원금)+부가금(이자) 일시 지급
- 가입금액 : • 부가금형·예탁형 : 100만원부터 1억원까지
 - 적립형 : 1만원부터 1억원까지, 1만원 단위
- 이율 : • 부가금형 : 2.67~2.70%
 - 예탁형·적립형 :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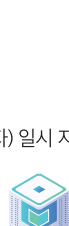
퇴직생활급여 퇴직 회원을 위한 고수익 노후생활 저축상품

- 가입자격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10년 이상)한 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만료·상병퇴직 및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하는 교직원
- 상품종류 : • 부가금형 : 목돈 납입 후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분할 지급, 급여금(원리금) 청구 시 부담금(원금) 지급
 - 확정연금형 : 목돈 납입 후 가입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부담금(원금)+부가금(이자) 분할 지급
 - 적립형 : 가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 납부, 만기 시 부담금(원금)+부가금(이자) 일시 지급
- 가입금액 : • 부가금형·확정연금형 : 500만원부터 3억원까지
 - 적립형 : 5만원부터 1억원까지, 1만원 단위
- 이율 : • 부가금형 : 2.67~2.70%
 - 확정연금형 : 2.99%
 - 적립형 : 2.70%

★ 저축 및 대여 상품은 세전이율·변동금리 적용



※ '저축' 관련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본부&지부 | 회원들의 원활한 금융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국 주요 도시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방 시 저축 대여제도 상담과 신청, 복지부조 신청, 보험상담 및 청구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방문시간 9:00~18:00
- 전화상담 1577-3400

회원 수

81 만 명

자산

37 조 원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로 117
더케이손해보험빌딩 11층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2층

경기남부지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경기회관 5층

전북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전북회관 4층

광주지부&전남지부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1층

경남지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경남회관 3층

경기북부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2층

강원지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 5층

충북지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9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충북회관 1층

대전지부&세종지부&충남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3층

대구지부&경북지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 6층

울산지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유안타증권빌딩 7층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부산회관 2층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제주KAL빌딩 6층

대여 | 어려울 때 튼튼한 희망이 됩니다

일반대여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을 위한 대여제도

- 신청자격: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 대여한도: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2017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탈퇴가정급여금) 담보 + 보증보험대여 한도액
- 이율: 연 3.74%(2019.09.01. 기준)
- 상환기간: 최장 9~10년까지

무이자대여

폐결핵 또는 질병,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회원을 위한 대여제도

- 신청자격: 폐결핵 진단, 질병·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 한 회원
- 신청기한: 폐결핵 완치일로부터 180일 이내, 질병·상해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대여한도: 최고 500만원까지
-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원금 분할 상환

The-K복지누리대여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의 대여제도

- 상품 종류
 - 미소누리 최초대여: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첫 대여를 이용하는 회원 대상
 - 행복누리 결혼대여: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 전·후 6개월 이내인 회원 대상
 - 희망누리 출산대여: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입양 후 3년 이내인 회원 대상
 - 든든누리 주택대여: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구입·임차 시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회원 대상
- 신청자격: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으로 1인 1회 신청 가능
(희망누리 출산대여의 경우 자녀 1인당 1회 신청 가능)
- 이율: 연 2.99%(2016.04.01. 기준)
- 대여한도: 최고 3천만원까지(희망누리 출산대여의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분할급여대여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과정에서 기존 대여를 상환하지 않고 전환하는 대여제도

- 신청자격: 장기저축급여 퇴직 청구 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
- 이율: 연 2.99%(2018.03.01. 기준)

※'대여' 관련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좋아요!!

영상으로 보는 공제회

2019년 The-K PR영상-바로, 보면 보입니다.



#더케이 #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바로
#보면 #보입니다 #실력 #믿음 #혜택 #Th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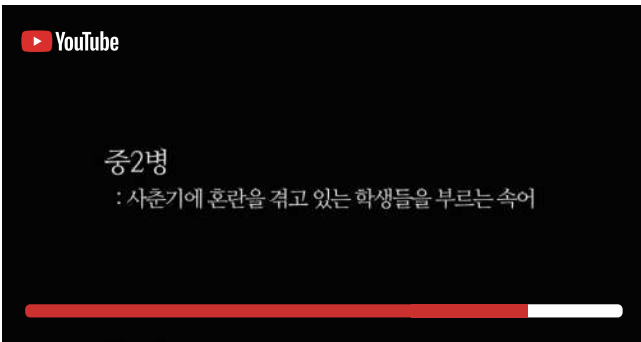
목돈급여편 [교직원공제회연구소 UNBOXING Vol.2]



#교직원공제회연구소 #언박싱 #목돈급여
#현직회원을위한고수익저축상품



[The-K의 2019년 첫 번째 캠페인] 태어나 처음 접하는 시험



#한국교직원공제회 #캠페인 #The-K캠페인
#태어나처음접하는시험



장기저축급여편 [교직원공제회연구소 UNBOXING Vol.1]



#교직원공제회연구소 #언박싱 #장기저축급여
#고이율저축과세국내최장기저축상품



The-K 미래교사 해외 탐험대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미래교사
#The-K해외탐험대



[The-K의 2019년 두 번째 캠페인] 세상을 향해 희망을 던지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캠페인 #The-K캠페인
#세상을향해희망을던지다



노인의 10명중 1명이 치매로 고통받는 지금,
등대같은 존재 하나쯤은 있어야죠!

지금 바로 교육가족 전용 치매 신상품을 안내받아보세요!

가입상담 1577-3993

각 시도지부에서도 상담 받습니다.



교육가족의 든든한 등대가 되어드릴

치매공제 (1907)

보장1 치매 및 장기요양의 **보장범위 확대**

보장2 심각한 중증치매 또는 중증장기 요양 진단시 **간병자금 종신 지급**

보장3 2대질병의 보장범위 및 **보장금액 확대** (해당특약가입시)



더 즐겁고 효과적인



‘회의’를 위한 노하우



설득의 시작, ‘눈빛’

전설적으로 감동적이고 인기가 많았던 강연의 시작은 늘 같다. 사람들과 ‘아이 콘택트’를 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눈에 시선을 고정하면 단숨에 호감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눈 맞춤이라는 것이 실제로 해보면 상당히 부담스럽다. 3초 이상 눈을 쳐다보면, 어색함을 참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시선을 얼굴 바깥쪽으로 가져가게 된다.

설득력이 강한 사람들은 눈 맞춤을 많이 하면서도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주는 시선 처리 방법을 사용할 줄 안다. 비결은 ‘눈동자만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두 눈동자와 미간, 코를 중심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면 상대방은 존중받는 기분을 느낀다. 여러 명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 청중들에게 골고루 시선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이때,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눈을 다 마주치는 것은 오히려 산만해진다. 청중의 위치를 크게 삼등분해서 좌측-중간-우측으로 나눠 시선을 분산시키면 자연스럽다.



청중을 사로잡는 ‘손짓’의 비밀

심리학자 로버트 기포드의 실험에 따르면, 면접 시 더 많은 손짓을 사용한 구직자가 합격률이 높다. 테드 인기 강연자들은 그렇지 않은 강연자보다 2배 넘게 손짓을 많이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손바닥을 자주 보여 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손의 움직임은 뇌와 관련이 많다. 사람의 뼈가 약 200개인데, 그중 25%인 54개가 손과 연결되어 있다. 손과 뇌 사이에 연결된 신경들이 몸의 다른 부위보다 더 많다는 것은 곧, 손을 통해 말이나 통제된 행동 너머에 있는 상대방의 진짜 의도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방의 손을 보면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테이블에 앉아 회의 시 기본 손동작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는 것이다. 손을 테이블 위에 어깨너비로 놓고 편안하게 11자로 취하며 손바닥이 보이는 자세는 신뢰도를 높여준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나 호응을 높이고 싶을 때는 손바닥의 위치를 어깨까지 올려도 좋다. 반대로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한다. 회의 중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행동을 멈출 때 유용한 방법이다. 발제자의 경우, 손의 높이를 어깨와 배꼽 사이에 두고 손짓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어깨 위나 배꼽 아래까지 손을 휘저으면 프로답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회생활을 하며 업무 시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회의’다. 평소 교실 안팎에서 소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생님들도 회의 시간만큼은 버겁다. 한정된 시간, 예상치 못한 질문들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회의 시 설득력을 높여주는 방법은 말의 내용이나 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UCLA 앨버트 메라비언 교수에 따르면, 대화 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이 55%, 청각 38%, 언어가 7%를 차지한다. 눈으로 보여지는 비언어커뮤니케이션, ‘눈빛, 손짓, 경청, 메모법’을 통해 회의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소개한다. 글. 주선훈(비즈니스에듀 강사)



완벽한 ‘경청’을 위한 환경 설정

경청의 중요성은 익히 들어 알지만,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천이 안 되는 일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경청을 잘하는 법’에서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관점으로 환경 설정을 해보자.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사용을 금지하고 무음으로 해 놓는다. 회의 시간 중간에 급한 연락이 왔다면 전화를 받으러 나가거나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만 줄여도 몰입도와 생산성은 훨씬 증가한다. 두 번째는, 회의 진행자가 알람을 통해 불필요하게 길어지거나 반복되는 발언을 끊어준다.

듣는 사람에게만 경청하라고 강조할 것이 아니다. 도저히 듣기 힘든 내용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자연스러운 경청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세 번째는, 경청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방해가 되는 자세에 대해 익히고 적용하는 것이다. 말하는 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의 바디랭귀지를 확인해주면 좋다. 예를 들어, 팔짱을 끼고 있다면 팔짱을 풀어 준다. 소그룹으로 대화 시, 상대방과 나 사이에 있는 물건을 치워주면 심리적인 거리도 훨씬 가깝게 느낀다.



잘하면 약, 못하면 독이 되는 ‘메모’

메모를 하면 두고두고 유용하다. 메모의 내용과 상관없이 메모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신뢰감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런데, 이 메모의 수위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모를 너무 열심히 하느라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거나 시선 처리를 못 해 이미지를 깎아 먹는 사람들이 많다. 효과적인 메모의 기준은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키워드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다. 전체 대화 시간의 60~70%를 상대방과 눈 맞춤 해야 신뢰감을 얻는다.

회의 시간에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차례가 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하지?’라며 신경 쓰며 시간을 보내본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 손 사용과 노출 빈도, 경청 환경, 효과적인 메모법을 통해 비언어커뮤니케이션 표현법을 살펴보았다. 말의 내용보다 더 강력한 무기, 다음 회의 시간부터 활용해보자. (K)





10월호 독자퀴즈

이번 호 <The-K 매거진>을 잘 읽어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100명에게 모바일문화상품권(3만원)을 드립니다.

※ 독자퀴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9월호 선정자는 11월호에서 확인하세요.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jwcy2000@naver.com 정답과 보내시는 분의 성함, 분회명(소속 기관명), 휴대폰 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응모 기간 : 10월 1일 ~ 10월 31일

Quiz 1. 조선어사전 편찬에 힘쓰며 우리 말과 글을 지키는 데 앞장선 언어 독립운동가는?

☐ ☐ 선생

Quiz 2. 프랑크푸르트에서 60km쯤 떨어진 독일의 마을로, 라인강의 진주라 불리는 곳은?

☐ ☐ ☐ ☐ ☐

Quiz 3. 아래 두 장의 사진 중 다른 부분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찾아 표시한 후 사진을 찍거나, 웹진이나 앱 구독자의 경우 다른 부분을 글로 설명해 보내주셔도 됩니다.



〈The-K 매거진〉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독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한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보내주세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The-K 매거진〉이 만들어드립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wcy2000@naver.com

독자 의견

※9월호 선정자는 11월호에서 확인하세요.

〈The-K 매거진〉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칭찬부터 톡톡 튀는 아이디어, 그리고 따끔한 충고까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독자 메일은 〈The-K 매거진〉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느낀 점과 새로운 의견을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모바일문화상품권(3만원)을 드립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wcy2000@naver.com

*메일을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분의 성함, 분회명(소속 기관명),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세요.

100세 시대, 점점 빨라지는 시대 시계.
이제 유병자, 고령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죠!

지금 바로 교육가족 전용 치매 신상품을 안내받아보세요!

가입상담 1577-3993

각 시도지부에서도 상담 받습니다.



유병자, 고령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간편가입치매공제 (1907)

보장 1 유병자, 고령자도 3가지 고지 항목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

보장 2 치매 및 장기요양의 **보장범위 확대**

보장 3 심각한 중증치매 또는 중증장기 요양 진단시 **간병자금 종신 지급**



The-K 매거진
10월 즉석당첨 이벤트

시월의 어느 멋진 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은 시월,
〈The-K 매거진〉이 준비한 선물로
멋진 날을 만들어보아요!

| 이벤트 기간 | 10월 1일 ~ 31일



SPC모바일상품권
10,000원권(100개)



CU편의점모바일상품권
5,000원권(200개)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
Tall(500개)

참여 방법

경품 옆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10월 즉석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정보를 확인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유의 사항

-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은 11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 이벤트 응모는 1일 1인 1회만, 당첨은 경품당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재 또는 미가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부정행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재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비가 쏟아질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렴한 보험료와 가입시점부터 만기까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상품(갱신형 제외)으로
교육가족의 삶에 닥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소나기들을 막아드립니다.

이미 14만 명의 회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입니다. (2019년 6월 기준)

보험가입문의 **1577-3993**

무료상담 080-399-3993 | 방문상담 시도지부 재정전문위원(홈페이지 참조)